

#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연구I : 도덕적 동기화

- ▶ 연구책임자 : 박병기(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 공동연구원 : 변순용(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김국현(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손경원(서울대학교 강사)
- ▶ 연구보조원 : 김민재(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 발 간 사 ■ ■ ■

최근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패와 기업의 부정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입시위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도덕적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창의인성 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2009년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 활동의 연계를 위한 기본적인 구상을 발표하였고, 2010년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를 통하여 두 제도의 원활한 정책연계를 위한 사례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와 더불어 인성의 측면, 특히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의 목적은 표준화된 한국형 청소년용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생활지도를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는 3개 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다년연구입니다. 올해는 그 1년차 연구로 총괄보고서 1권과 도덕성 하위영역인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관련 4권의 하위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차년도와 3차년도 연구를 통한 정밀한 표준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보고서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도덕 및 윤리교육과 도덕성 함양 프로그램개발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 재 연 드림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사도구 초안에서 레스트의 4구성요소 모델에 근거하여 도덕적 동기화를 정의하고,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감정에 기초하여 2개 하위영역을 구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귀감모델의 이야기 사례와 Likert식 5단계 평정법에 의한 문항형식을 활용하여 총 3개의 사례(사례별 6문항 구조)로 이루어진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검사도구 관련 전체회의와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낙관성 연구결과를 추가하여 사례별 3개 대항목 6소항목의 구인을 확정하고, 총 3개 사례의 21문항의 예비검사를 개발하여 중·고등학생 총 262명을 대상으로 표준화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도덕적 동기화 검사의 Cronbach  $\alpha$  는 비교적 높았다. 허위 응답자를 제거하는 문항을 활용하여 제거하여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858이다. 둘째, 내용타당도는 양호하였지만 3요인의 구인 타당도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야기 사례 구인이 하위 항목 하위에 비해 영향력이 있었고 3개의 이야기 사례를 관통하는 단일 구인요인이 발견되었다. 셋째, 3개의 귀감사례의 도덕적 주제를 거시도덕으로 통일하고 도덕적 정체성의 1요인 모델로 구인을 재설정하였다.

향 후 2차 년도에는 심층면접 자료 분석과 문항 개발 방식의 다양화하여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제어: 도덕성, 청소년도덕성, 한국청소년 도덕성 진단도구, 4구성요소모형, 도덕적 동기화



## 연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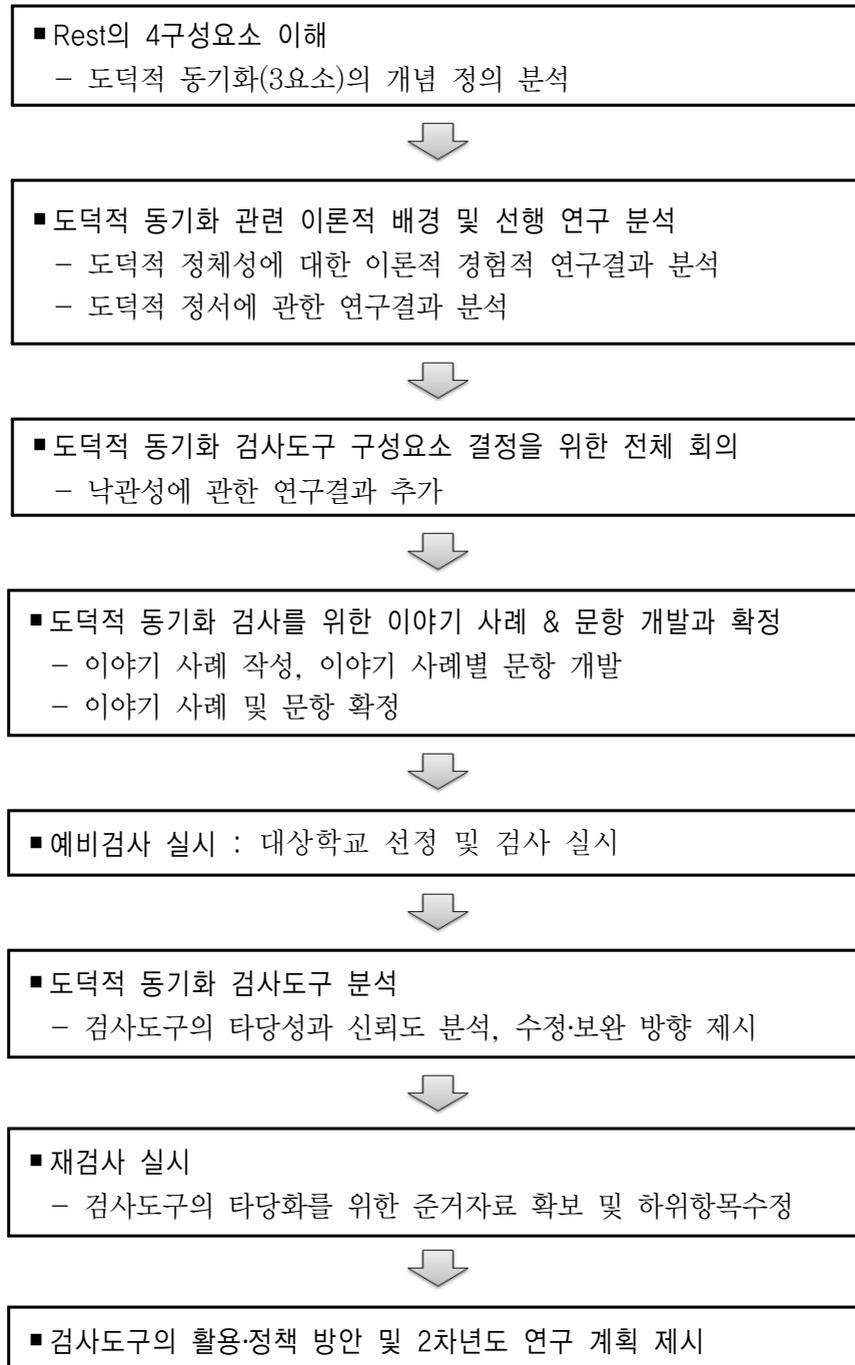
### 1. 연구 목적

- 미국의 도덕 심리학자인 J. Rest가 제시한 4구성요소(Four Components: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을 토대로,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개발
- 그 중에서 특히 도덕적 동기화 측정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임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도덕성 연구가 주로 인지적 접근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덕적 동기화 관련된 경험연구와 검사도구는 미비한 실정.
- Rest는 4구성요소 모형에서 도덕적 동기화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지만 그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음. 이에 본 연구는 인지와 정서의 통합을 추구하는 도덕적 정체성과 자기 의식적 정서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여 도덕적 동기화의 구성요소를 대항목 및 소항목 수준에서 확정함
- 연구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덕적 동기화 구성요소 확정 →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을 측정하기 위한 이야기 사례 개발 및 확정 → 예비조사 실시 → 통계적 기법에 의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 → 재검사 실시
- 연구대상
  - 서울소재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총262명을 대상으로 실시
  - 중학생은 116명이며, 고등학생은 146명임
  - 남학생은 123명, 여학생은 139명임

○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개발 과정을 개념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3. 주요 연구 결과

- 도덕적 동기화의 대항목 구인으로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긍정성이 확정되었으며, 도덕적 중심성의 소항목 구인으로 도덕의 자기 중요성과 도덕적 감정, 도덕적 통합성의 소항목 구인으로 도덕적 자기 일치와 도덕적 욕구, 긍정성의 소항목 구인으로 도덕에 대한 긍정성과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으로 설정
- 이야기 사례 및 검사지 구성: 딜레마 주제를 선정하여 내부 토의를 거쳐 6가지를 개발했고, 최종 3가지를 확정함
- 문항구성은 각 딜레마마다 총 7문항(3개 하위요소×2개 문항 + 무성의 문항1개)으로 구성
-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5점 만점이고, 총18개 문항이며, 도덕적 동기화 지수의 만점은 90점임
- 허위반응점검은 도덕적 동기화의 검사도구 6개 문항 중에 2개를 정-반 문항으로 설정하여, 그 차이 정도를 기준으로 무성의 반응을 걸러냄
- 신뢰도 점검과 관련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하위요소별로 산출하였으며, 문항별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함
- 타당도 점검과 관련하여 구인타당도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소 간 독립성 파악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함. 아울러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내용타당도 제고 노력
- 학교급별, 성별 등 집단별 통계분석을 통해 전체 평균 및 분포를 파악함.

### 4. 정책적 제언

-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는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2차년도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한 추가 연구 필요
- 향후 도덕적 동기화의 지수산출과 각 지수 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즘 구축 필요
- 국제적 타당도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외국학자 초청 토론회 개최
- 지수개발 후, 연도별 전국 규모의 도덕성 조사 및 메타 정보 생산을 위한 예산 편성 건의



# 목 차

<b>I. 서 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배경과 연구 내용 .....	4
<b>II. 이론적 배경</b> .....	7
1. 도덕성 정의: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의 통합적 관점 .....	9
2. Rest의 4구성요소 모형(Four Components Model) .....	11
3. 도덕적 동기화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분석 .....	14
1) Rest의 도덕적 동기화 .....	14
2) 4구성요소 모형에 근거에 Bebeau의 연구 .....	15
3) 도덕적 정체성 .....	16
4) 도덕적 정서 .....	21
5) 낙관성 .....	23
4. 도덕적 동기화의 개념 정의 및 하위항목 .....	24
<b>III. 연구 과정 및 방법</b> .....	27
1. 검사도구의 제작 .....	29
2. 예비검사를 위한 전체 회의 .....	31
3. 검사의 문항 구성 .....	32
1) 도덕적 이야기 사례 .....	32
2) 하위항목의 설정 및 문항 구성 .....	34
4. 검사의 실시 및 자료 처리 .....	37
1) 연구 대상 .....	37
2) 검사 실시 .....	37
3) 재검사 실시 .....	37
4) 자료처리 및 분석 .....	38
5.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개발 방향과 과정 .....	39

<b>IV. 연구 결과</b> .....	<b>41</b>
1. 문항구성 및 채점방식 .....	43
2. 무성의 반응 점검 .....	44
1) 무성의 문항의 채점과 반응 .....	44
2) 사례별 무성의 반응분석 .....	46
3. 신뢰도 분석 .....	47
1) 내적일치도 .....	47
2) 문항별 신뢰도 .....	48
4. 타당도 분석 .....	50
1) 확인적 요인분석에 근거한 구인타당도 .....	50
2) 탐색적 요인분석에 근거한 요인 탐색 .....	51
3) 상관분석 .....	54
5. 타당화 과정 및 수정 .....	55
1) 구인 타당화 .....	56
2) 이야기 주제의 타당화 .....	57
6. 문항 분석 .....	60
7. 집단별 분석 .....	62
1) 전체 평균 및 분포 .....	62
2) 학교급별 비교 .....	64
3) 성별 비교 .....	64
4) 부모의 학력에 따른 비교 .....	68
5) 종교의 유무에 따른 비교 .....	70
6) 도덕과목 흥미도에 따른 비교 .....	71
7) 친구 수에 따른 비교 .....	72
8) 도덕적 동기화의 향상 요인 .....	73
8. 타지수와의 상관성 분석 .....	73

V. 논의 및 결론 .....	77
1. 요약 및 결론 .....	79
2. 활용 방안 및 정책 방안 .....	81
3. 2차년도 연구의 세부 계획 .....	81
참 고 문 헌 .....	85
부 록 .....	93

# 표 목 차

〈표 II-1〉 발달의 수준과 단계에 따른 도덕판단의 분류 .....	9
〈표 II-2〉 도덕적 동기화에 관한 여러 관점 .....	15
〈표 II-3〉 도덕적 정체성 문항의 주성분 분석 .....	20
〈표 II-4〉 도덕적 동기화의 3요인 모형 .....	26
〈표 III-1〉 도덕적 동기화 문항 예시사례 .....	30
〈표 III-2〉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 설정 .....	34
〈표 III-3〉 검사도구의 문항사례 .....	35
〈표 III-4〉 사례별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	36
〈표 III-5〉 연구대상(학교급, 성별) .....	37
〈표 III-6〉 청소년 도덕성 지수개발을 위한 전원회의 소집 현황 .....	39
〈표 IV-1〉 검사도구의 구조 및 채점방식 .....	43
〈표 IV-2〉 [기준 1] 적용 시 제외 대상 및 통계분석 대상 .....	45
〈표 IV-3〉 [기준 2] 적용 시 제외 대상 및 통계분석 대상 .....	45
〈표 IV-4〉 무성의 문항과 도덕적 동기화 하위항목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	46
〈표 IV-5〉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별 신뢰도 계수 .....	47
〈표 IV-6〉 도덕적 동기화의 각 하위항목별 문항 삭제 후 신뢰도 계수 .....	48
〈표 IV-7〉 도덕적 동기화 신뢰도 계수(무성의 문항 삭제) .....	49
〈표 IV-8〉 확인적 요인분석에 근거한 구인타당도 .....	50
〈표 IV-9〉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행렬(a)] .....	52
〈표 IV-10〉 5요인 모형의 적합도 .....	52
〈표 IV-11〉 탐색적 요인분석 [패턴행렬a] .....	53
〈표 IV-12〉 하위항목별 탐색적 확인 분석 .....	54
〈표 IV-13〉 도덕적 동기화의 소 항목간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	54
〈표 IV-14〉 도덕적 동기화의 대 항목간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	55
〈표 IV-15〉 이야기 사례별 탐색적 요인분석 .....	56
〈표 IV-16〉 이야기 사례의 누적분산 비율 .....	57

〈표 IV-17〉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 모형 적합도 .....	57
〈표 IV-18〉 공정한 거래의 이야기 사례 .....	59
〈표 IV-19〉 사례 모형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	59
〈표 IV-20〉 ‘상재의 결정’ 이야기 사례의 문항분포 .....	60
〈표 IV-21〉 ‘부서진 작품’ 이야기 사례의 문항분포 .....	61
〈표 IV-22〉 ‘버스 안에서 생긴 일’ 이야기 사례의 문항분포 .....	62
〈표 IV-23〉 도덕적 동기화의 평균 및 분포(대항목, 도덕적 동기화 전체) .....	63
〈표 IV-24〉 도덕적 동기화의 평균 및 분포(소항목) .....	63
〈표 IV-25〉 학교급별 도덕적 동기화의 비교 .....	64
〈표 IV-26〉 도덕적 동기화의 남녀 성차 .....	65
〈표 IV-27〉 중학생의 도덕적 동기화의 성차 .....	66
〈표 IV-28〉 고등학생의 도덕적 동기화의 성차 .....	67
〈표 IV-29〉 부학력에 따른 도덕적 동기화의 차이 .....	68
〈표 IV-30〉 모학력에 따른 도덕적 동기화의 차이 .....	69
〈표 IV-31〉 종교의 유무에 따른 도덕적 동기화의 차이 .....	70
〈표 IV-32〉 도덕과목 흥미도에 따른 동기화의 차이 .....	71
〈표 IV-33〉 친구 수에 따른 도덕적 동기화의 차이 .....	72
〈표 IV-34〉 도덕적 동기화의 향상 요인 .....	73
〈표 IV-35〉 각 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	74
〈표 IV-36〉 각 지수(하위요인포함)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	75

# 그림 목 차

【그림 Ⅲ-1】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개발 과정 .....	40
-----------------------------------	----

# 제 1 장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배경과 연구 내용



제 1 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sup>1)</sup>

2009년 1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창의성과 인성을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에 개인이 적응할 수 있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된다고 보아 학교별로 이러한 능력들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이러한 교육정책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미래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21세기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 역량으로서 창의성과 함께 인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능력만으로는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불완전하며, 도덕성이 올바르게 확립된 인성적 측면에서의 성숙이 절대로 필요하며 올바른 인성의 틀 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어야만 글로벌 인재로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도덕성 발달 지표와 검사도구의 개발이 동반되어야 한다. 차별화된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발달수준에 비추어 체계적이고 타당한 도덕성 교육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덕성은 지금껏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었지만,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최종 목표로 하는 연구는 없었다. 도덕적으로 사고(판단)하고 느끼는 것도 결국 도덕적 행동으로

1) 본 연구보고서는 J. Rest의 도덕성에 대한 4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는 청소년의 도덕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 4구성요소의 개념 중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요소들과 이론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작성된 다음의 보고서의 서론 및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상당부분 중복되는 바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이인재 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이인재 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박균열 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민감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연결되어야만 학문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도덕·윤리 연구의 기본 목표나 방향은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있어야 하며, 따라서 도덕적 행동에 관련된 제반 심리학적 과정 변인을 중심으로 도덕성을 측정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관여하는 심리적인 변수인 도덕적 판단력, 도덕 감수성(민감성), 도덕 동기화 그리고 도덕적 품성화 등을 측정하는 표준화 도구를 개발하여 청소년 교육과 지도를 위한 국가 수준의 시계열적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화된 한국형 청소년용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여, 국가 수준의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 또는 윤리 지수를 측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 교육이나 상담, 생활지도를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도덕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크게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로 설정하여, 이 4가지 각각의 개념과 이에 속하는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들 각각의 요소들의 발달적 특성을 파악한 후, 이들이 한 인간의 전체적인 도덕성 발달, 즉 도덕성 지수를 타당하게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국적 상황에 부합한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덕적 동기화와 관련된 표준화된 한국형 청소년용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 2. 연구의 배경과 연구 내용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아는 대로 행하는 것[知行合一]’ 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간의 괴리를 종종 목격한다. 그러한 괴리의 원인으로 Aristoteles가 지적했듯이 ‘의지의 나약함(akrasia, weakness of will)’ 을 들 수 있다. Aristoteles는 유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하고, 덕 있는 행위를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헤아리면서 올바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인 선택과 수단을 고려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practical wisdom)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L. Kohlberg는 선에 관한 지식은 도덕적 행동을 산출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 간주하는 플라톤의 전통에 서서 ‘극단적 이성주의’ 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즉, 선에 대한 지식은 곧바로 도덕적인 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지적인 의지(intellectual will)를 강조한다. 그러나 온건한 이성주의자인 Rest는 Kohlberg의 인지결정론적 입장을 지양하고, 인지와 정서와 행동을 통합적으로 보고자 하였다(Narvaez & Rest, 1995).

Rest는 도덕성 발달의 4구성요소 모형을 통해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감수성(moral sensitivity),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 내지 실행(implementation)의 네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도덕적 행동의 실패는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소에 문제가 있을 때 야기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4구성요소 모형 중에서 도덕적 동기화의 검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도덕적 동기화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도덕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지에 대한 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Rest는 도덕적 동기에 대한 다양한 도덕적 이론의 가능성을 밝히며, 도덕적 동기에 관한 연구를 조망하여 진화론, 위반에 대한 수치와 공포, 사회적 모델링과 강화, 보다 높은 권력에 대한 충성, 정의 공동체,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 사회적 책임감 등 7가지의 도덕적 동기화의 근원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7가지 이론 중에서 어떤 이론이 도덕적 동기화의 근원으로서 가장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4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적 동기화가 도덕적 판단을 전제하거나 도덕적 판단과 함께 작용할 수 있는 도덕적 동기화 이론을 필요로 한다. 레스트 이후의 도덕 심리학계는 도덕적 동기화의 문제에 천착했다. 도덕적 정체성이나 도덕적 정서는 도덕적 동기화의 근원으로서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Rest의 도덕적 동기화를 재정의하고 도덕적 동기화에 대한 이론 및 경험연구 결과들을 활용하여 도덕적 동기화의 검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 제 2 장

---

# 이론적 배경

1. 도덕성 정의: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의 통합적 관점
2. Rest의 4구성요소 모형(Four Components Model)
3. 도덕적 동기화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분석
4. 도덕적 동기화의 개념 정의 및 하위항목



#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 1. 도덕성 정의: 인지 · 정서 · 행동적 측면의 통합적 관점

도덕성은 지금까지 주로 세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인지발달론이 중시하는 도덕적 사고(인지)와 정신분석학이 강조하는 도덕적 정서, 그리고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이론이 주목하는 도덕적 행동이 그것이다. 도덕성 발달이론을 처음 주창한 Kohlberg(1958)는 도덕성 개념을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도덕적 사고(판단) 능력으로 정의하고, 보편·불변적이고 불가역적인 순차성을 지니는 6개의 단계를 제시한 바 있다(〈표 II-1〉 참조).

**표 II-1      발달의 수준과 단계에 따른 도덕판단의 분류**

수준	도덕판단의 기반	발달의 단계
I	도덕가치는 사람이나 표준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類似물리적 사건에, 사악한 행위에, 또는 유사 물리적 욕구에 귀속한다.	<b>단계 1.</b> 복종 및 처벌 정향(orientation). 우월한 힘내지 권능에 대한 자기중심적 존경, 혹은 좋은게 좋다는(trouble-avoiding)태도. 객관적 책임 <b>단계 2.</b> 순수 이기주의 정향. 자기의 욕구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도구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이다. 각 행위자의 욕구 및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상대주의에 대한 각성. 소박한 평등주의, 그리고 상호성 및 교환에 무게를 둬
II	도덕가치는, 훌륭하고 정당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즉 인습적 명령과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서 성립한다.	<b>단계 3.</b> 착한 아이 정향. 다른 사람을 돕고 기쁘게 해주고 승인을 얻으려는 정향. 당연한(natural) 요컨대 모두가 하는대로 따라가는 식의 역할 행동 그리고 의도성에 의거한 판단. <b>단계 4.</b> 권위와 사회질서 유지 정향. “의무수행” 에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존경 표시 및 사회질서 유지 그 자체에 무게를 둬. 타인의 응당한 기대에 따름.
III	도덕가치는, 공유되거나 공유할만한 표준, 권리, 의무에 대한 자아의 동조에서 성립한다.	<b>단계 5.</b> 계약맞춤과 법준중 정향. 협약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 기대나 규칙이 지닌 임의적 요소를 분별해냄 혹은 그것의 출발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인식함. 계약, 타인의 권리 내지 의지의 존중, 다수의 복지 등의 견지에서 의무를 규정함. <b>단계 6.</b> 양심 혹은 원리 정향. 현실적으로 제약을 주는 사회규칙쪽에 뿐만 아니라 논리적 보편성 및 일관성에의 호소를 담고 있는 선택의 원리쪽에 무게를 둬. 행위의 지도력인 양심에 그리고 상호존중 및 신뢰의 무게를 둬.

출처: Kohlberg, 김민남 · 진미숙 역, 『도덕발달의 심리학』, 교육과학사, 2000[1984], pp. 44-45 재인용.

그러나 도덕성은 도덕적 사고나 정서, 행동 중 그 어느 하나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 뛰어난 추론(사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때때로 세련된 추론이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감추거나 방어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감정이입이나 죄책감이 크다 해서 반드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이입의 능력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감정이입은 오히려 도덕적 행동을 저해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또한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 해서 반드시 도덕적이라 정의할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도한 죄책감은 비정상적인 신경증만을 유발할 뿐, 높은 도덕적 이상의 경지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행동의 동기나 의도가 아닌, 행동 그 자체가 도덕성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 모두 도덕적이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행동의 결과만으로 도덕성을 정의한다면, 남을 해치기 위해 음식에 독약을 넣은 것이 그의 위장병을 고쳤을 때 그것도 도덕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Rest, 1983, pp. 565-557).

따라서 도덕성이나 도덕 교육의 연구에서 사고나 정서, 행동의 세 측면을 따로 나누어 접근하기보다는 각 측면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도덕적 행동을 중심적 위치에 놓고 도덕적 사고나 정서가 그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행동을 중시하는 것은 도덕성 연구나 도덕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까지나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덕적 추론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복지에 미칠 결과나 영향에 대해 아무리 민감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인 도덕적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사고(인지)만으로 도덕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도덕적 사고와 정서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도덕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인 도덕적 행동에 대한 예언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성 연구 분야에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주창한 대표적 연구자들로는 T. Lickona와 Rest를 들 수 있다. 통합적 인격교육론자인 Lickona(1991)는 도덕성을 인지적 도덕성, 정의적 도덕성, 행동적 도덕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덕성 요소들이 결합되어 궁극적으로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Lickona는 통합적 관점의 도덕교육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도덕적 선(善)을 알게 하는 것에만 치중한 인지발달론적 관점과 선을 직접 행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 간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훌륭한 인격은 선(善)을 아는 것(도덕적 지식)과 선을 열망하는 것(도덕적 감정),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도덕적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교육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옳은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원하며, 그러한 도덕적 지식과 감정을 도덕적 행동으로 효과적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덕적 판단·감정·행동의 능력을 모두 갖춘, 완전한 도덕 행위자를 길러 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추병완, 1999).

한편, Kohlberg의 이론적 입장을 이어 받은 Rest(1986)는 도덕적 사고(인지)와 정서, 행동에 관하여 Kohlberg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는 도덕성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 그들이 서로의 복지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원리이자 안내’ 라고 정의하면서(Rest, 문용린, 2008[1986]), 도덕적 사고(인지)가 아니라 도덕적 행동에 주목하였다. 그는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4가지의 심리적 과정(psychological process)을 제시하면서,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덕적 민감성(제1 요소), 도덕적 판단력(제2 요소), 도덕적 동기화(제3 요소), 도덕적 품성화 및 실행능력(제4 요소) 등의 4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도덕성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도덕적 행동이 실제로 표출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알고 이들을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하는 데 있다. 도덕적 사고나 정서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모두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관여하는 심리적 과정으로서만 의미가 있다.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은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교육적 시사점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도덕성 진단 연구는 Rest의 4 구성요소 모형 중 도덕적 동기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2. Rest의 4구성요소 모형(Four Components Model)

이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도덕성을 인지 측면(판단력)에서만 보지 않고 정서와 행동의 측면까지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인지발달론자인 Rest가 이러한 모델을 제시한 것은, 도덕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도덕성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모형의 궁극적인 관심은 한 개인이 도덕적 행동에 이르게 되는 여러 심리적 과정들을 밝히는 데 있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은 도덕적 인지가 아니라 도덕적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하나의 틀 속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도덕성을

연구하는 전통적인 세 이론인 인지발달론(인지 측면)과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이론(행동 측면), 그리고 정신분석학(정서 측면)을 종합하려는 이론적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한 개인의 도덕적 행동은 첫째, 도덕적 상황의 인식 및 해석, 둘째,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한 추론, 셋째, 도덕적 동기화, 넷째, 도덕적 행동의 실행 등의 네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도덕적 행동의 실패는 위 네 가지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소에 문제가 있을 때 야기된다.

도덕적 행동의 표출 과정에서 필요한 제1 요소는 도덕적 민감성 또는 도덕적 감수성(moral sensitivity)이다. 이는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도덕적 이슈들을 지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이나 결과를 미칠 수 있을지를 미리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다. 먼저, 어떤 상황을 도덕적 사태로 지각·해석하지 못한다면 도덕적 행동은 일어날 수 없게 된다. Rest(1986)는 이에 대하여, 1964년 미국 뉴욕시에서 일어난 ‘Kitty Genovese사건’을 예로 들면서, 방관자 효과(bystander's effect)의 개념으로 이를 설명한다(Rest, 1986). 그것은 도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늦은 저녁에 한 여성이 강도에게 30분 동안이나 폭행을 당해 숨지기까지, 38명의 이웃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면서도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당시 목격자들에 대해 면담한 결과, 그들은 모두 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몇몇 사람은 연인들 사이의 공연한 다툼으로 생각하고 간섭하기 꺼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타인의 필요와 복지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해도 도덕적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S. H. Schwartz(1977)의 연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복지에 미칠 가능한 결과들에 주목하는데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성의 유무는 당연히 도덕적 행동의 표출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도덕적 민감성은 제2 요소인 도덕적 추론(인지) 능력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능력이라 볼 수 있고, 실제 측정 결과에서도 두 요소 간에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Bebeau et al., 1985). 이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는 미네소타 대학교 치과대학의 Bebeau 등(1985)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그 타당도와 신뢰도 역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요소는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이다. 제1 요소에서 가능한 행동의 경로들과 그것이 타인에 미칠 영향이나 결과에 대한 인식(지각)이 이뤄지고 난 후, 제2 요소에서는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요소는 도덕적 사고(인지)를 지칭하는 바, Kohlberg의 이론 체계에서 도덕성으로 간주되던 것이지만, Rest의 모형에서는 단지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설명하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요소의 측정에는 Kohlberg가 개발한 주관식 인터뷰 검사인

MJI(Moral Judgment Interview)와 이를 객관화한 Rest의 DIT(Defining Issues Test)가 있고, 최근에는 전문인의 도덕성을 별도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교사의 도덕성을 측정하는 F. Y. Chang(1993)의 TTMR(Test of Teacher's Moral Reasoning)과 간호사의 도덕성을 재는 Crisham(1981)의 NDT(Nursing Dilemmas Test)가 개발된 바 있다.

제3 요소는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이다. 제1 요소에서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이슈를 가려내고 그것의 해결이 타인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헤아릴 수 있고, 제2 요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의 경로들이 정당하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서 도덕적 행동이 곧바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제3 요소에 의해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 예컨대 경제·사회·종교적 가치들보다 더 우위에 두려는 동기 부여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J. M. Bebeau 등(1993)에 의해 개발된 PROI(Professional Role Orientation Inventory)를 들 수 있는데, 이 도구는 전문직 종사자의 역할 개념(role concept)을 측정하여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평가하려는 도구이다.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설명하는 마지막 요소는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인데, 이 요소는 자아 강도(ego-strength)와 인내심, 용기 등의 하위 특성들을 포함한다. 한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민감하고 도덕적 판단을 잘 하며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들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더라도, 그가 만일 외부 압력에 쉽게 굴복하거나 쉽게 용기를 잃고 좌절한다든가, 의지가 약하다든가 하면 도덕적 행동은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제4 요소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그것이 일종의 심리적 힘이나 기술(skills)로서 이해된다는 점에서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띠는 점이다.<sup>2)</sup>

도덕성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성을 진단하는 연구에서도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나 요소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Rest의 4 구성 요소 모형은 도덕적 행동의 표출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과정이나 요소들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도덕성 연구와 교육의 주요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2) 굳은 결심, 인내, 의지력, 용기, 강한 성품, 자아 강도와 같은 것은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자아강도는 은행을 털 때, 마라톤을 준비할 때, 콘서트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때, 대량학살을 일으킬 때처럼 여러 상황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Rest, 1985: 22; Rest(ed.), 문용린 외 공역, 2008: 39).

### 3. 도덕적 동기화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분석

4구성요소 모형은 인지-정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도덕적 행위가 발생한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현실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한 도덕적 동기화의 이론적 논의 역시 다양할 수 있지만 도덕적 정체성이나 도덕적 정서는 레스트의 이론적 관점과 일관된 도덕적 동기화 이론이다. 이에 레스트의 4구성요소 모형과 관련된 연구들은 물론 도덕적 동기화의 근원으로서의 도덕적 정체성 및 도덕적 정서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Rest의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가치가 인간의 유일한 가치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도덕적 가치이외에도 돈, 음악, 승진, 사회적 성공 등과 같은 것을 가치롭게 여길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도덕적 가치와 경쟁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종종 무엇이 도덕적 가치인지 안다 해도 돈이나 눈앞의 쾌락을 보다 가치롭게 여길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가치를 포기하고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도록 동기화시키는가?

Rest는 다른 모든 가치보다 도덕적 가치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가치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도덕적 동기화로 정의하였다. 도덕적 동기화를 통해 행위를 유발하는 여러 변인들의 상호작용이 있으며 그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하는 이상에 관한 가치들 중에서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한 가치를 선택하면서, 도덕적 이상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둘째, 그러한 과정에는 다양한 동기들이 상호작용한다. 다양한 목표들의 상대적인 유용성에 대한 계산이나 감정이 영향을 미치며, 인식과정에서 방어적 왜곡이 있을 수 있으며, 누구를 공감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위 목표가 달라진다 (Kurtiness & Gerwitz, 문용린 역, 2005).

Rest는 이러한 동기화 과정에 대한 일곱 가지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표 II-2〉 참고).

**표 II-2      도덕적 동기화에 관한 여러 관점**

모델번호	내 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천적 이타심은 도덕적 가치를 따르도록 함</li> <li>○ 선천적 이타심을 갖는 종이 진화에 유리 함</li> <li>○ 이타적 행동은 인간의 유전적인 형질의 일부</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에 대한 수치, 공포, 죄의식이 옳은 행동을 하게 함</li> <li>○ 코치와 선수, 장교와 신병,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의 상호작용</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모델링과 강화가 옳은 일을 행하게 함</li> <li>○ 행동주의 이론으로 도덕적 행동은 학습된 행동</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높은 권력에 대한 충성</li> <li>○ 신에 대한 경외심, 자신의 나라 등에 대한 감정</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공동체의 경험이 도덕적 행위로 이끔</li> <li>○ 이러한 경험은 다른 가치에 비해 도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만들</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li> <li>○ 자아개념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도덕적인 행위를 함</li> <li>○ 자아 정체성은 도덕적 자기일치의 근원임</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책임감</li> <li>○ 사회적 이해를 통해 도덕적 가치를 실천함.</li> </ul>

이렇듯 기존의 다양한 이론에서 나타난 도덕적 동기화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 어떤 이론이 가장 유력한 관점임을 밝히거나 다양한 도덕적 동기화 관점을 통합하는 연구를 하지 않았다. L. Walker(2002)는 Rest의 4 구성요소 모형을 설명하며 도덕적 이해를 도덕적 동기화의 유일한 근원으로 간주한 Kohlberg의 이론에 내재한 인지편향의 오류를 적절히 지적하였지만, 도덕적 동기화에 대해 충분히 연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서미옥은 4 구성요소 모형에 근거한 국내의 연구를 정리하며 도덕적 동기화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고 진단하였다. 국내의 32개의 연구들 중 도덕적 동기화 관련된 경험연구의 논문은 3편에 불과하며 그 중 두 편은 배려와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에(서미옥, 2005) 실질적으로 도덕적 동기화에 관련된 논문은 도덕적 동기화의 근원으로서의 도덕적 자아 한편에 불과하다.

2) 4구성요소 모형에 근거에 Bebeau의 연구

4구성요소 모형은 전문직 윤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주목받았다. 전문직 윤리나 윤리교육에

접목되어 상당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Thoma, 2002), Bebeau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1983년에 4구성요소에 입각하여 치과대학생들의 전문직 윤리를 측정하였다.

Bebeau는 3요소인 도덕적 동기화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선행연구를 활용하였다. 첫째, T. J. Seehan(1985, pp. 375-400)이 개발한 도구로, 직면할 법한 가상의 윤리적 상황에 따라 내과 의사를 인터뷰하는 역할 기반 척도이다. 둘째, A. G. Rezler과 그의 동료들이(1992) 개발한 법률가와 내과 의사를 위한 직업적 의사결정과 가치 검사로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행위 경향성과 근저의 가치를 측정하였다. 피험자의 응답을 세 주제로 정리하였다: 1) 환자의 의무 대 사회에 대한 의무 2) 환자의 자율성 존중 대 직업적 책임 3) 환자의 이익 보호 대 권위 존중. 셋째, 전문직 역할 기반척도를 활용하였다. 권위와 책임의 개념을 측정하였는데, 두 개념은 도덕 철학자들이 기술하는 전문가의식(professionalism)의 공통 요소이다.

Bebeau의 도덕적 동기화 연구는 전문직 역할 기반척도를 사용하여 직업에 대한 동기화와 헌신에 대한 것이다. 전문직은 그들이 서약한 그리고 책임져야 할 핵심 가치체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전문직의 동기화와 헌신을 연구하는 것은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개인판단을 안내하는 핵심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가치와 가치 선호를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Bebeau는 도덕의 지표를 확장하였다. Rest의 도덕적 동기화는 도덕 판단의 '동기화' 과정을 측정하고자 하였다면, Bebeau는 책임과 권위의 관점에서 직업적 가치에 헌신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결국 Bebeau는 정의 그 이상의 가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가치에 대한 헌신 정도를 도덕적 동기화로서 측정하였다.

### 3)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동기화 근원으로서 국내외 학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Blasi, 1980, 1993, 2004; Higgins-D'Alessandro & Clark Power, 2008[2005]; Lapsley & Navaez, 2004a, 2004b, 2009; McKinnon, 2008[2005]; 손경원, 2005, 2011 ; 이인재, 2007; 이정렬, 2009; 정영우, 2011 ; 정창우, 2003, 2004). 도덕적 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최대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아일치(self-consistency)의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의지박약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의 부족 문제는, 도덕

심리학 및 도덕교육 연구의 중요한 주제였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는데 상당수 동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족한 동기를 어떻게 증진하느냐에 있다. 우리는 도덕적 위반 시 처벌의 강도를 높이거나, 도덕적 행동을 유인하는 외재적 동기의 유인책을 사용하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압적이거나 외재적 수단을 통한 동기의 증진은 방법의 도덕적 정당성이나 장기적 효과성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을 유발한다. 즉 그러한 방법들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효과가 일시적으로 지속될 뿐이다.

도덕적 정체성이 주목받는 것은 바로 도덕적 이해(moral understanding)에 기초한 도덕적 동기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Blasi에 따르면, 부족한 도덕적 동기가 도덕적 정체성으로부터 나올 때 도덕적으로 정당하며, 도덕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리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도덕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 (1) A. Blasi의 도덕적 정체성

Blasi는 도덕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 판단을 수행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자아 일치에 내적 동기로 인해 도덕판단을 도덕적 행동으로 옮기도록 동기화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도덕적 자아 모델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Lapsley, 문용린 역, 2000, pp. 362-372). 첫째, 자아 모델은 도덕 행동의 기초 개념으로 책임과 통합을 강조한다. 책임은 자신의 도덕판단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뜻하며, 통합은 자아와 일치된 행동, 즉 자아에 진실한 행동에 내재한 전체성(wholeness)과 개인적 완전성(intactness)을 뜻한다. 둘째,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이해가 성격의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도덕성이 자신의 자아의 핵심이나 본질이고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정도로 도덕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도덕적 성격의 핵심을 도덕적 자아라고 부른다. 도덕적 개념이 성격의 중심으로 통합되었을 때 강한 도덕적 의지를 갖는다. 도덕적 자아 모델은 심리학적 연구에서 무시된 도덕적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도덕적 이해는 도덕적 정체성 형성에 선행한다. 도덕적 통합은 도덕적 이해에 근거한다. 도덕적 이해로부터 도덕성이 자아에 통합되고 도덕적 정체성이 형성된다.

최근 Blasi(2008[2005])는 초기의 도덕적 자아 모델을 확장하여 도덕적인 사람의 특징으로 도덕적 이해력, 의지력, 도덕적 욕구, 자기 통합성을 제안하였다. 도덕적 이해는 무엇이 도덕적인 지에 대한 도덕판단이다. 도덕적 욕구는 도덕적 정체성에 일치하여 행동하려는 욕구이다. 이러한 도덕적 욕구가 자기 일치의 동기로 인해 도덕적 의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Blasi에 따르면,

“도덕적 욕구는 동기화 체계에 있어서 매우 중심적이며 핵심인 정체성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은 자연발생적인 필연성을 따르게 된다.” 또한 “도덕적 덕들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람과 자아 정체성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 간의 차이점은 행위의 일관성, 자기희생 혹은 장기간의 헌신으로 간주되는 도덕적 실천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한다면 Blasi에게 도덕적 자아는 도덕판단과 도덕행위를 매개한다. 자신에 대한 충실성으로부터 도덕적 행위를 하려는 인지적 동기가 나온다고 본다. 만일 도덕적 판단이나 이상에 따라 살지 못했을 때 나는 나의 정체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도덕적 헌신이란 자기 이해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핵심이나 본질로, 자아와 행위가 하나 됨을 느끼게 한다.

## (2)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한 도덕적 정체성

Blasi의 도덕적 정체성 모델을 계승하며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사회인지이론과 접목하여 재정립한 연구들이 D. K. Lapsley와 D. Narvaez( 2004a, 2004b, 2007, 2009), Aquino와 그의 동료들(2002, 2009)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Blasi에 따르면, 도덕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도덕이 자신의 이해에 핵심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람이다.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도덕이 자아정체성의 핵심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람은 바로 도덕이 만성적으로 접근가능한 사람이다. 이들은 도덕적 관점에서 사건의 의미를 식별하고, 경험의 도덕적 가치에 주목하고, 도덕적 측면을 실시간(on-line) 세심하게 살핀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의 도덕은 쉽게 점화되고 활성화되며, 일단 활성화되면 도덕에 헌신하도록 이끈다(Lapsley & Hill, 2009, p. 201). 요약하자면, 도덕적 인격 즉 도덕적 정체성을 갖는 사람은 도덕이 만성적으로 접근가능한(chronically accessible) 사람이다(Lapsley & Narvaez b, 2004).

K. Aquino와 A. Reed는 사회인지이론에 입각한 정체성 모델이 도덕적 정체성의 안정성과 일관성은 물론 상황에 따른 변화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일관성만을 설명하는 Blasi의 도덕적 정체성 모델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Aquino & Reed는 2002년에는 Lapsley의 만성모델을 따라 도덕적 정체성을 도덕적 특질의 연합이 자아도식의 중심으로 정의하고, 도덕적 정체성의 자기 중요성을 측정하고, 중심성 수준과 봉사활동의 만족도 및 적극적 기부행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도덕적 특질의 연합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 내면화 측면과 공적으로 얼마나 표현하는지를 묻는 상징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도덕적 정체성의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두 차원의 도덕적 정체성은 자아 도식을 구성하는 일부로 확인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을 기술할 때 도덕적 정체성을

사용한다. 도덕적 정체성의 내면화와 상징화는 자기 보고적 봉사활동 참여의 유의미한 요인이며 상징화는 내적 만족도와 참여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내면화 정도는 적극적 기부행위의 횟수와 정도에 영향을 주었다(Aquino & Reed, 2002).

### (3) 경험연구 결과 분석

Rest의 4구성요소의 모델은 Kohlberg의 인지중심의 도덕적 동기화를 정서적 요소로 확장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추론과 같은 인지적 요소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도덕행위를 동기화하는데 충분치 않으며 공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가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S. J. Thoma는 4구성요소 모형은 각 요소 전반에서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Thoma, 2002).

S. A. Hardy(2006)는 도덕적 동기화의 원천으로 알려진 도덕적 추론, 도덕적 정서, 도덕적 정체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19-35세의 9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기화 요소와 친사회적 행동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친사회적 도덕 추론은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이 없었지만 도덕적 정체성과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과의 상관정도는 크지 않았다. 도덕적 정체성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추론이나 공감과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 변인여부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S. P. Oliner & P. M. Oliner(1988)는 귀감이 되는 도덕적 선택을 한 성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여 도덕적 선택의 근원에 자아가 개입되어 있음을 밝혔다. A. Colby & W. Damon (1992)은 도덕적 귀감 연구를 통해 도덕적 이상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도덕적 이상과 원리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도덕적 귀감을 인터뷰한 결과 도덕적 정체성이 도덕적 동기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Aquino & Reed(2002)는 사회 인지이론의 관점에서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경험연구를 시도하였다. 먼저 도덕성을 다양한 가치와 덕과 관련된 특질들로 정의하였다. 배려, 동정심, 공정, 우호적임, 관대함, 근면, 유용함, 정직, 친절함 등은 대표적인 도덕적 특질이다. Aquino & Reed는 이러한 도덕성의 정의에 근거하여 도덕성의 개념 도식이 자아에 얼마나 중심이 되는지를 측정하여 도덕적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도덕적 정체성 문항의 주성분 분석결과는 <표 II-3>와 같다. 각 문항들은 내면화와 상징화의 두 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도덕적 가치의 정체성을 측정하고 있다. 내면화 범주는 도덕적

가치들이 개인의 자아에 얼마나 중요하게 내면화되었는가를 묻는 문항이라면, 상징화 범주는 도덕적 가치를 얼마나 바람직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에 명백하게 상징화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표 II-3 도덕적 정체성 문항의 주성분 분석

문 항	상징화	내면화
1.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좋을 것이다.	.00	.62
2.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되는 일은 나의 정체성에 중요하다.	.22	.70
3. 나의 감정적 안녕은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04	.21
4. 이러한 특징을 갖는 사람이 되는 일은 부끄럽다. (역문항)	.25	.59
5.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일은 중요치 않다. (역문항)	.08	.71
6.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일은 나의 정체감에 중요하다	.40	.61
7. 나는 이러한 특징을 갖기를 열렬히 바란다.	.32	.66
8. 나는 종종 내가 이러한 특징을 가졌다는 사실을 전하는 물건을 산다.	.66	.02
9. 나는 종종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표현해주는 옷을 입는다.	.67	.06
10. 내가 읽는 책과 잡지들을 통해 내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60	.26
11.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여가 시간에 한다.	.63	.09
12. 내가 이런 특징을 지녔다는 사실을 내가 가진 속한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이야기 한다.	.72	.16
13. 나는 능동적으로 내가 이러한 특징을 가졌다는 점을 소통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한다.	.69	.22

한인현과 권성우, 배종훈(2008)은 Aquino & Reed(2002)가 제작한 도덕적 정체성의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12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정체성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고 협상과정에서 전술적 행위와 협상성과의 관계의 조절변수여부를 조사하였다. 공동의 이익 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밝혀진 협상에서의 통합적 전술들이 도덕적 정체성의 소유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4) 도덕적 정서

##### (1) 도덕적 동기의 근원으로서 도덕적 정서

도덕적 정서는 도덕적 정체성과 함께 도덕적 동기화의 다른 원천이다. 도덕적 정체성의 실질적 증거의 여부는 도덕적 실패에서 발생할 때 수반될 죄책감이나 후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도덕적 자아는 도덕적 정서와 연계되어 있다. 도덕적 정서 중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최근 연구는 도덕적 자아가 생긴 이후에서야 도덕적 정서가 발현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도덕적 정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출현한다. 자기에 대한 신념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와 평가에 따라 자신을 조절하는 복잡한 인지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Lewis, 1971; Leary, 2007).

Blasi는 정서가 도덕적 의미를 갖고 도덕적 동기화에 기여하는 두 방법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Blasi, 1999). 첫째, 순간적이고 자동적으로 발생한 정서가 이미 존재한 도덕적 관심사의 결과일 때이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최소한 복지를 누려야 한다는 도덕적 원리’를 발달과정에서 습득하였고, 그 결과 불쌍한 사람을 보고 느끼는 동정심의 경우 충분히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둘째, 도덕적 판단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아가 의도적으로 정서를 활용할 때이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과 다른 곳에 돈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갈등할 때, 그를 도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다른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 그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며 돕지 않았을 때 느껴질 죄책감을 상상하는 경우이다. 그 결과 증대된 동정심과 죄책감으로 돕는 행동을 했다면 도덕적 가치를 지닌 정서라 할 수 있다.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등과 같은 기본 정서와는 달리 도덕적 정서는 이차 정서로서(second-order emotion),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평가하는 자아의 활동을 전제하는 ‘자기 의식적 정서(self-conscious emotion)’로 분류된다(Leary, 2007).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대표적인 자기 의식적 정서로, 자신의 도덕판단과 행동 및 대인관계에서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 규범과 도덕을 준수하도록 동기화하고 잘못된 행동을 정서적으로 처벌하며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회의 도덕표준을 준수하고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도록 한다.

비록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 평가결과로 도덕적 정서가 발생하지만 도덕적 정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표준과 판단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Barrett, 1995). 즉 도덕적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는 타자의 평가에 대한 추론이 선행해야 한다. 부끄럽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당황하거나

자랑스럽다고 느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하지만 실재하는 혹은 상상의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평가’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도덕적 정서로서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구분하고 있다. 부끄러움은 자아 전체에, 죄책감은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은 모두 고통스럽고 불쾌한 정서이기 때문에 위반을 부인하거나 위반상황을 회피하도록 유인하는 경향도 보인다. 죄책감은 자기 자신이 아닌 위반행동에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덜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따라서 위반에 후회하며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공감하고 보상하거나 잘못된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 죄책감은 타인의 복지와 안녕에 관심을 두는 타자 지향적 정서이다(Leary, 2007). 반면 수치심은 자기 자신 전체를 향한 정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러운 정서이다. 수치심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위반을 부정하고 숨기고 피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정서의 대상이 자신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자기 지향적 정서이다. 따라서 피해를 당한 상대에 대한 공감이 낮다(Tangney, 1992, 1998; Tangney, Stuewig, & Mashek, 2007).

부끄러움이 자아 전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공격성이나 우울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수반된다면, 죄책감은 행위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상과 책임의 동기로서 작용한다. 죄책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는 사건의 결과에서 있을 느낌이지만, 그러한 정서를 예상하는 일은 비도덕적 행위를 예방하고 도덕적 행위를 촉진한다. 특히 죄책감은 일관되게 타자를 향한 관점채택과 공감적 염려를 보이며, 도덕적 행동을 추구하고 비도덕적 행동을 회피하도록 한다(손경원, 2010).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죄책감은 도덕적 행위를 촉진하는 동기로서 간주할 가치가 있다.

## (2) 경험연구 결과 분석

Nunner-Winkler(2007)는 도덕적 동기화에 대한 중단연구를 통해 도덕적 정서가 도덕 동기화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는 도덕적 동기화를 도덕발달 단계에 근거한 Kohlberg의 인지-정서 동형이론을 거부한다. 도덕적 동기화는 개인이 치러야 할 비용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아는 것을 실천하려는 자발성으로 정의된다. 감정이 가치의 헌신정도와 가치에 헌신하려는 행위 경향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화는 ‘감정을 어떻게 귀인하는가’를 통해 측정한다. 만일 피해자에게 행복한 감정을 귀인한다면 비도덕적 행동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독일 청소년의 도덕적 동기화의 발달에 대해 종단연구를 실시하고 전반적으로 발달 양상을 보이지만 개인적 경로는 대단히 다양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죄책감은 개인이 도덕적 표준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자기 비난의 부정적 정서이다. 죄책감이 도덕적 행위의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한 경험연구들은 상당수 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나쁘게 평가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의 느낌을 낳는다. 따라서 부적절한 행동을 후회하고 이것에 대해 고백하거나 사과하기, 또는 보상하기와 같은 행위가 동기화 된다. 따라서 죄책감을 크게 느낄수록 부정적 행동을 교정하려고 한다(Tangney, 1992, 1998).

이러한 죄책감과 같은 정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정적상관이 있다(Zahn-Waxler et al. 1990).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공감능력이나 죄책감이 부족하다. 김경희와 이희정(2001)은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에게 신체적으로 괴롭히거나 흠치기, 악의적 거짓말과 같은 도덕적 위반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그들의 도덕적 정서반응을 비교하였다. ‘자신이 가해자 입장’ 이라고 가정했을 때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은 오히려 기쁨(53.3%)을 느낀다고 하였고, 일반 청소년 집단은 죄책감(50%)을 느낀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품행 장애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도덕적 정서가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낸다(서미옥, 2005).

## 5) 낙관성

Rest는 도덕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마음에 대한 심리연구 결과들에 주목하였다. 어떤 목표나 결과를 소망하는 것은 그에 대해 인지적 표상을 갖는 것이며 뭔가를 바라는 것은 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비록 ‘약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만’ 성공경험에 의해 행복하게 느끼는 피해자가 좀더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는 점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게임에 성공한 어린이들이 좀 더 기꺼이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쿠키를 먹은 대학생이 보다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자원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면 기분이 좋을 때 사람들은 좀 더 긍정적이고 관대하며 협력적이다(Kurtinuss & Gerwitz, 문용린 역, 2005).

레스트가 조망하고 있는 행복한 기분, 성공경험, 긍정적 마음이 도덕행위에 미치는 효과는 최근 긍정심리학이 주목하는 낙관성(optimality)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이탈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상통한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주목하면서 긍정심리학이 새로운 연구의 장으로 부각되었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이 가진 문제와 그 치료에만 중점을 두어온 질병치료모델에서 벗어나 인간의

미덕과 탁월함과 같은 잠재력에 주목한다. 긍정심리학은 서양에서는 아테네의 철학자, 동양에서는 공자와 노자로 거슬러 올라간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미덕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사회는 내가 좋은 삶을 사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따라서 긍정심리학은 단지 행복학에 불과하거나 행복의 피상적 형태인 것은 아니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친절, 호기심, 팀원으로서의 긍정적 특질과 성향뿐만 아니라 가치를 연구한다. 좋은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제도 역시 긍정심리학자들의 연구주제이다(Peterson, 문용린 역, 2010, pp. 24-30).

긍정심리학 연구자들은 특히 낙관성에 관심을 쏟는다. 낙관성은 자신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화된 기대를 뜻한다. 말하자면 낙관성은 당장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미래에는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 정도로, 이는 개인의 부적응 문제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일관되게 낙관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심리적 신체적 적응을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낙관적인 대학생들은 비관적인 대학생들에 비해 만성적인 분노 수준이나 분노 억제 정도가 낮으며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우울 경험이 적으며 불안수준도 낮다(이희경, 2008).

따라서 낙관성은 일탈과 비행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보호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보다 잘 사회에 적응하고 높은 안녕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요인으로서 간주된다. 선행연구들(김정수, 2008; 신정원, 2002; 신현숙류정화이명자, 2005; 신현숙, 2005; 황혜원 2011)은 이러한 긍정심리학의 가정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성이 그 자체로 도덕적 동기화의 근원으로서 취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레스트가 조망한 행복한 기분 상태나 긍정적 태도가 우연적으로 도덕적 행위에 미칠 수 있으며 상관정도 역시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낙관성이 도덕적 동기화의 근원으로서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낙관성을 도덕적 동기화의 한 요인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도덕의 영역에 대한 긍정성과 낙관적 태도로 제한 할 필요가 있다.

#### 4. 도덕적 동기화의 개념 정의 및 하위항목

본 연구는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동기화의 근원 모색이라는 Rest의 이론적 입장을 반영하여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정서 및 낙관성의 선행 결과를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접근의 도덕적 동기화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적 특성에도 부합한다.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로, 이시기의 청소년들은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아를 사회적이고 심리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자아를 보다 도덕적 용어로 정의하며 자아와 도덕을 통합한다(Damon, 1984). 청소년들은 자아나 행위를 평가하는 자신의 체계를 발달시키게 되며, 이러한 체계는 도덕적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는 도덕적 이상의 발달을 포함한다(Keller & Edelstein, 1993; 정영우, 2011).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과 자아가 통합되는 것이며 동시에 도덕이 자아의식의 핵심이자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개인적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된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관점을 의미한다. 만일 도덕성을 자아의 핵심으로 삼는 사람은 도덕적 관점에서 세상을 지각하고, 생각하며,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말하자면 도덕적 정체성은 자신을 도덕적 가치나 이상과 동일시(identify)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도덕적 정체성의 개념화는 자아일치를 유지하려는 도덕적 욕구의 동기화의 힘을 설명한다. 도덕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이상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정한 도덕적 목표나 이상에 따라 살려는 자기 일치의 동기가 생기게 된다. 만일 자신의 이상적 가치에 따라 행위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때때로 예상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은 자기일치의 동기로서 작용한다. 도덕적 동기화의 근원으로서 작용하는 도덕적 감정은 자아의 표상이나 자신의 평가 기준과 얽혀 있다(Keller & Edelstein, 1993).

도덕적 정체성은 나의 이상에 헌신하도록 하여 진정한 자아를 이루는 도덕적 이상이 행위로 구현되도록 하는 도덕적 통합성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자기 통합성은 우리가 말하거나 행하는 것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느끼는 신념들 간의 모순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식적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 결과이다(Blasi, 1995). 도덕적 통합성은 도덕이 자아의 일부가 되어 도덕에 전념하도록 이끌며 도덕적 자아의 존재를 확인하고 행위를 통해 드러내려는 욕구나 의지와 연관된다(정영우, 2011, pp. 148-150).

도덕적 통합성을 가진 귀감은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지니며, 자신에 대한 유익한 신념을 가지며, 도덕원칙에 대한 헌신을 하며 더욱 자신에 진실하다(Matsuba & Walker, 2004). 자신과 삶에 대한 긍정적 성향과 태도는 비도덕적 행위를 예방하고 사회적 적응을 촉진한다(신현숙, 2005). 결국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정서, 낙관성은 서로 무관계한 개념이기보다 도덕적 동기화의 근원으로서 상호작용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도덕적 동기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모형을 결정하였다(〈표Ⅱ-4〉)

참고).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긍정성의 3개의 대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두 개의 소항목을 설정하였다. 하위항목 설정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하였다. 첫째, 도덕적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도덕적 정체성의 구인들을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도덕적 정서는 도덕적 자아나 정체성과의 관련이 있으며 도덕적 인지를 필요로 하는 ‘자기 의식적인’ 이차 정서이다. 셋째, 낙관성 그 자체가 아니라 도덕적 귀감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과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도덕적 이상에 대한 확신, 도덕적 영역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설정하였다.

표 II-4 도덕적 동기화의 3요인 모형

대항목	소항목	문항예시
도덕적 중심성	도덕의 자기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덕이 자기의식에서 중요한 정도</li> <li>예)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소중하다.</li> </ul>
	도덕적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의식 또는 평가체계에 기반 한 감정. 죄책감.</li> <li>예) 도덕이지 못했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li> </ul>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자신을 도덕적 이상과 동일시</li> <li>예) 도덕적 가치를 따를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li> </ul>
	도덕적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덕으로 행위하고자 하는 욕구</li> <li>예)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싶다.</li> </ul>
긍정성	도덕에 대한 긍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덕적 가치나 이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li> <li>예)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li> </ul>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과 삶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도덕적 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적으로 조망</li> <li>예) 내 삶은 정말 좋고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공정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li> </ul>

## 제 3 장

---

# 연구 과정 및 방법

1. 검사도구의 제작
2. 예비검사를 위한 전체 회의
3. 검사의 문항 구성
4. 검사의 실시 및 자료 처리
5.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개발  
방향과 과정



# 제 3 장

## 연구 과정 및 방법

### 1. 검사도구의 제작

본 연구의 검사도구를 제작하기 위해 Rest가 제안한 도덕적 동기화 이론 및 도덕적 동기화에 대한 후속 연구결과들을 참고하였다.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Blasi(1983, 1995, 2004)의 연구에 입각하여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으로 도덕적 중심화 정도와 온전성(integrity)을 설정하였다. 또한 독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인 Nunner-Winkler(2007)의 도덕적 동기화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도덕적 정서 귀인을 하위요소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은 도덕적 정체성(도덕적 중심화, 온전성)과 정서 귀인이다.

구체적으로 사례 주제와 문항 개발을 위해 Aquino와Reed(2002, 2009)의 검사도구 문항과 Nunner-Winkler 검사도구 주제 및 문항을 이용하였다. Rest의 도덕 개념은 사회적 수준에서 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사회의 구조, 즉 사회 체제에 관한 거시도덕(macromorality)과 일상적인 삶에서의 타인들과의 관계형성에 관련된 미시도덕(micromorality)을 포괄한다(Rest et al., 1999; 정창우, 2004, p. 59). 이러한 Rest의 도덕관을 고려하여 거시도덕의 사례로서 공정한 대우와 미시도덕의 사례로서 책임과 정직, 타인의 배려를 선정하였다. 공정한 대우와 책임과 정직의 주제는 Nunner-Winkler의 검사도구에서도 사용된 것이다.

도덕적 주제의 제시방식은 사례제시 방식으로, 이는 도덕적 주제를 담고 있는 등장인물과 그의 주변 인물의 이야기로 제시되는 방식이다. 가급적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설정하였고, 딜레마 방식이 아닌 도덕적 귀감의 행동 사례 방식을 활용하였다. 도덕적 동기화는 도덕적 가치를 다른 여타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딜레마보다 도덕적 이야기에 등장하는 귀감을 따라 도덕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동기화 정도를 물을 수 있는 이야기 사례가 보다 적합하다.

표 III-1 도덕적 동기화 문항 예시사례

[친한 친구를 특별하게 대우해야 하나? : 공정한 대우]

민재는 선생님을 도와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수행평가 과제의 표절을 찾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민재는 과제가 조별마다 특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선생님과 함께 과제를 검토하면서 일부 과제의 주제 뿐 아니라 형태와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과제를 검사하는 동안 갑자기 가장 친한 동수로부터 자신의 조원인 성하가 다른 조의 보고서 일부를 보고 베꼈다는 사실을 방금 전해 들었다고 이야기 하며, 성하는 민재에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친한 친구라는 점을 생각해서 눈감아 줄 것을 부탁했다. 민재는 이미 똑같은 부분이 있는 보고서를 한 편이나 찾았지만 민재와 친하지 않은 강호의 과제였다. 그런데 이제 표절로 판정할 보고서가 친한 친구인 동수의 조이며, 더욱이 민재는 동수에게 부탁까지도 받은 상태이다. 민재는 고민 끝에 표절의 원칙은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수의 조 보고서를 표절로 분류하였다.

검사 항목		문항 요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중심화	1. 나는 민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좋아 한다.	1	2	3	4	5
		2. 나에게 민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1	2	3	4	5
		3. 나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기이다.	1	2	3	4	5
	온전성	4. 민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1	2	3	4	5
		5. 나는 민재처럼 기꺼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싶다.	1	2	3	4	5
도덕적 정서 귀인	6. 만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7. 친구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한 동수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 것이다.	1	2	3	4	5	

문항 형식은 응답자로 하여금 주어진 진술문을 읽고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는 정도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평정하게 하는 리커트

(Likert type) 5단계 평정법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이 ‘매우 그렇다’에 해당되면 ①에, ‘그렇다’에 해당되면 ②에, ‘보통이다’에 해당되면 ③에, ‘그렇지 않다’에 해당되면 ④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 해당되면 ⑤에 표시하도록 하였다(〈표 Ⅲ-1〉 참고).

도덕적 동기화 팀의 연구진의 회의를 거쳐 검사문항의 논리적 적합도 및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 2. 예비검사를 위한 전체 회의

선정된 검사도구의 이론 적합도와 양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2011년 6월에 도덕적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개발된 검사도구의 이론 적합도와 양호도에 대해 4개 팀의 연구자들이 함께 논의하였다. 4개 팀이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에 근거한 단일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때문에 팀 간 일치도와 각 팀 내의 검사도구의 이론적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검사도구 개발과 관련된 모든 주제들이 논의되었고, 그 중 도덕적 동기화의 검사도구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될 것이 주로 논의되었다.

첫째,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의 하위항목 설정방식이다. 본 연구는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에 근거한 도덕성 검사도구 개발이라는 취지에 맞게 Rest의 연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둘째,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와 품성화 검사도구의 구분이다. 4개 요소의 독립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지라도 도덕적 동기화와 도덕적 품성화의 검사도구 간의 하위항목 및 검사 문항의 차별화를 유의해야 한다. 이에 도덕적 품성화 팀이 Rest가 제안한 하위 기술을 중심으로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도덕적 동기화는 현재의 검사문항에서 하위항목 설정을 달리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셋째, 검사도구 문항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력과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하다. 팀 자체로 문항을 개발한 후 고등학교 교사에게 자문하여 학생들에게 맞는 어휘와 표현으로 수정하고, 또한 직접 학생들에게 실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력과 검사도구의 반응을 확인하여 수정할 것이 논의되었다.

### 3. 검사의 문항 구성

전체 회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덕적 동기화 팀의 연구진은 도덕적 동기화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도덕적 동기화 구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새롭게 검사도구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수정된 검사도구를 교사와 학생의 자문 받아 딜레마 주제와 이야기 사례와 문항의 진술의 이해가능성을 재검토하였다. 초기의 검사도구에 비해 달라진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도덕적 이야기 사례에 대한 가독성을 높였다. 둘째, Rest 이론에 근거한 동기화 구인을 추가하여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 1) 도덕적 이야기 사례

청소년이 부딪칠 수 있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한 도덕적 귀감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이야기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도덕적 주제를 명료하고 간단하게 진술하였다.

##### (1) 공정성과 정직 (도덕적 이야기 제목: 상재의 결정)

내용 :

과제의 표절 심사를 하는 학생이 자신의 친구와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 공정하게 도덕원칙을 적용할지를 묻는 문제로 도덕의 핵심인 공정성과 정직에 대한 동기화 정도를 묻는 문제임

도덕적 이야기 문안 :

상재는 역사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수행평가 과제 평가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과제를 베꼈다는 사실을 상재에게 고백하면서 눈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상재는 친한 친구인 동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재는 표절을 찾는 작업 도중 별로 친하지 않은 강호의 과제에도 베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재는 고민 끝에 표절의 원칙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수와 강호의 과제 모두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 (2) 책임 (도덕적 이야기 제목: 부서진 작품)

## 내용 :

실수로 남의 작품을 부순 학생이 공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고자 하는 정도를 묻고자 하는 문제로서 실수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다른 누군가 대신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임

## 도덕적 이야기 문안 :

해니는 반 아이들에게 비난받는 윤서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윤서는 축제 기간 동안 전시해 놓은 공예 작품을 부수고도 오히려 발뺌한다고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 윤서는 장난기 많고 덜렁거려서 종종 남의 물건을 망친 적이 있었기에, 공예 작품을 부순 사람으로 윤서가 지목된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부순 것은 윤서가 아니라 바로 해니 자신이었다. 그 사실을 말한다면, 해니는 반 아이들속인 사람으로 찍혀서 남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누명을 쓰고 비난도 받고 있는 윤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반 아이들에게 사실을 고백하였다.

## (3) 약자에 대한 배려 (도덕적 이야기 제목: 버스에서 생긴 일)

## 내용 :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양보라는 문제를 사례로 하여 타인의 배려와 약자 보호에 대한 동기화 정도를 묻는 문제로서 약자에 대한 고려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는 갈등을 두 사람의 예시를 통해 약자 보호와 타인 배려의 결단 과정과 이유를 명시하여 약자에 대한 배려의 동기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임

## 도덕적 이야기 문안 :

일표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주와 함께 버스를 탔다.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기에 둘은 번갈아 앉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곧 사람이 딱 들어찼고 마침 동주가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가까운 곳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일표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드리자고 말하자, 동주는 자신도 지쳤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일표는 그 할머니가 몹시 피곤해 보여 계속 마음이 쓰였다. 일표는 자신이 앉을 차례가 되자 할머니께 앉으실 것을 권했다.

## 2) 하위항목의 설정 및 문항 구성

도덕적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전체 회의에서 제기된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 재설정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여, <표 III-3>과 같이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을 결정하였다. 도덕적 동기화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도덕적 정체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검사도구에 낙관성 및 긍정심리학의 연구결과를 구인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정체성을 직접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으로 설정하는 것을 피하고 도덕적 정체성이 도덕적 동기를 야기하는 근원으로서 기능하는 Blasi의 이론을 분석하여 도덕적 중심성과 도덕적 통합성을 대항목으로 설정하고 도덕적 중심성의 하위 항목으로서 도덕의 자기 중요성과 도덕감정을 설정하였다. 도덕적 통합성의 하위 항목으로서 도덕적 자기일치와 도덕적 욕구를 설정하였다.

둘째, Rest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상황적 혹은 성향적 낙관성을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으로 설정하였다. Rest는 행복한 기본 상태나 성향적 낙관성이 도덕적 동기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kurtiness & Gerwitz, 1984, p.15). 최근 긍정심리학 및 낙관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김정수, 2008; 신정원, 2002; 신현숙, 2005; 황혜원, 2010)은 Rest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덕적 영역에 중심을 두어 ‘자신과 삶에 대한 그리고 도덕적 행위 실천에 대한’ 낙관성에 대한 의식을 관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도덕적 욕구는 도덕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도덕적 삶의 지향을 상징하기 때문에 도덕적 동기화의 표시이다. 따라서 도덕에 대한 긍정성과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의 대항목을 긍정성으로 설정하였다.

**표 III-2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 설정**

대항목	소항목	‘상재의 결정[공정한 대우]’ 사례의 문항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자기 중요성	▪ 나에게 있어,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도덕적 감정	▪ 만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일치	▪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도덕적 욕구	▪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싶다.
긍정성	도덕에 대한 긍정성	▪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 내 삶은 정말 좋고 나는 어려운 문제 부딪쳐도 공정하게 잘 해결 할 수 있다.

수정된 검사도구의 사례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검사도구의 문항사례**

		<b>"상재의 결정"</b>						
		<p>상재는 역사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수행평가 과제의 표절*을 찾는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과제를 베꼈다는 사실을 상재에게 고백하면서 눈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상재는 친한 친구인 동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재는 표절을 찾는 작업 도중 별로 친하지 않은 강호의 과제에도 베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재는 고민 끝에 표절의 원칙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수와 강호의 과제 모두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p> <p>* 표절(剽竊) : 시나 글, 노래 등을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p>						
다음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검사 항목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도덕적 중심성	1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도덕적 통합성	3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긍정성	5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공정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무성의 문항	7	나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정한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도덕적 동기화 검사는 <표 III-4>에서 제시된 상재의 결정이외에도 ‘부서진 작품’, ‘버스 안에서 생긴 일’ 이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총 세 가지 사례로 구성되었다. 각 사례에 대한 6문항의 5점 평정법의 질문들과 응답자의 성실도를 분석하기 위한 문항 7이 있다. 도덕적 검사도구의 사례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4 사례별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이야기 사례	문항번호	도덕적 동기화 하위요인	무성의 반응 체크문항
상재(의 결정)	1번	도덕의 자기 중요성	7번
	2번	도덕적 감정	
	3번	도덕적 자기일치	
	4번	도덕적 욕구	
	5번	도덕에 대한 긍정성	
	6번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7번	허위반응 문항	
(부서진) 작품	1번	도덕의 자기 중요성	7번
	2번	도덕적 감정	
	3번	도덕적 자기일치	
	4번	도덕적 욕구	
	5번	도덕에 대한 긍정성	
	6번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7번	허위반응 문항	
버스(안에서 생긴 일)	1번	도덕적 자기 중요성	7번
	2번	도덕적 감정	
	3번	도덕적 자기일치	
	4번	도덕적 욕구	
	5번	도덕에 대한 긍정성	
	6번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7번	허위반응 문항	

## 4. 감사의 실시 및 자료 처리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총 262명이며, 중학생은 44.3%, 고등학생은 55.7%이며, 남학생은 46.9%, 여학생은 53.1%로서 여학생이 근소하게 많으나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5 연구대상(학교급, 성별)**

학교급별	남	여	합 계
중학생	58 (50.0)	58 (50.0)	116 (44.3)
고등학생	65 (44.5)	81 (55.5)	146 (55.7)
합 계	123 (46.9)	139 (53.1)	262 (100)

### 2) 감사 실시

감사는 2011년 7월 초순부터 중순에 걸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 4개 팀의 감사문항을 하나의 검사도구로 만들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시간제한은 없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 검사도구를 1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었다.

### 3) 재검사 실시

재검사는 2011년 9월 중순에 구인 타당도 및 사례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7월에 실시된 감사를 분석 한 결과 검사도구의 타당도 문제를 발견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높으나 구인 타당도가 낮으며, 3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낮아 검사도구의 하위항목 설정 방식에 대한 재검증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진의 논의 결과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검사도구를 수정보완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낮은 타당도의 원인으로 첫째, 사례 주제의 타당성이 의심되었다. 이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약속 지키기)를 추가로 포함한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사례별 및 사례 간 탐색적 요인분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긍정성에 대한 문항 진술방식이 학생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문항 진술을 개선할 필요가 제기 되었다. 셋째, 부끄러움과 관련된 도덕적 감정에 대한 문항과 기존 문항의 수정된 형태의 문항을 첨가할 경우 검사도구의 타당도가 개선되는지의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었다. 넷째, 피험자에 따른 검사도구의 반응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변화여부를 검토하였다.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검사이었기 때문에 재검사의 규모는 표준정규화 분포를 지지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인 30명보다 약간 많은 38명의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재검사의 목적인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의 설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재검사의 결과는 검사도구의 타당화 과정에서만 활용하였다.

#### 4) 자료처리 및 분석

예비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2.0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의 각 하위항목 내에서의 문항 간 상관 계수, 문항과 하위항목과의 상관계수, 신뢰도, 주성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등이 행해졌다.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을 구분하여 검사도구를 제작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6.0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검사결과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 모형 적합도가 매우 낮았다. 이에 다양한 하위항목의 모형을 설정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먼저 전체 검사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의 최대우도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고 검사 구인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3요인 모형, 4요인 모형, 5요인, 6요인 모형을 설정하고, 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할 때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모형 적합도를 판별할 수 있지만 표본 수에 매우 민감하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적합도 지수가 더욱 타당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SS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제시된 카이제곱값과 자유도를 근거로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RMSEA 값을 직접 계산하였다.

각 요인들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가정되었기 때문에 요인회전은 SPSS의 사각회전인 Direct Oblimin 방식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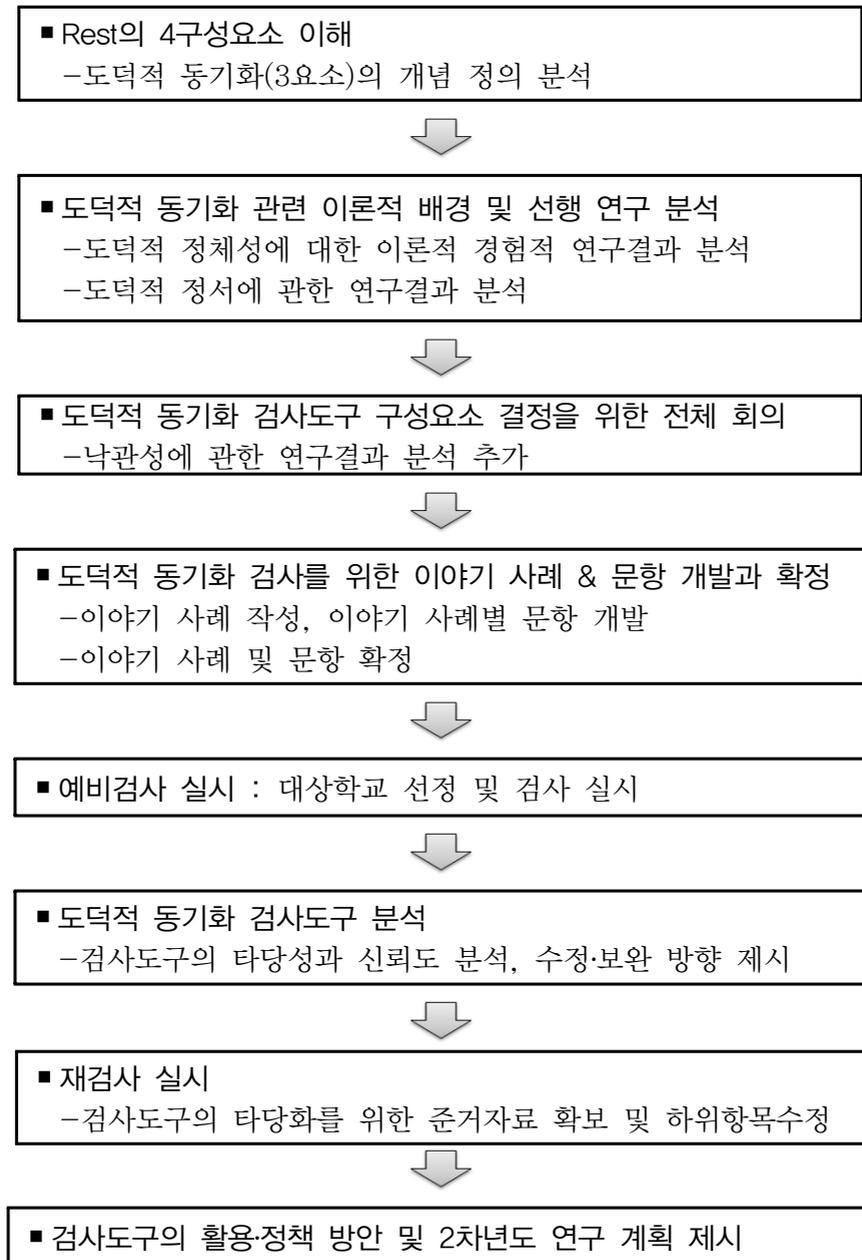
## 5.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개발 방향과 과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전체회의가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검사도구 개발 절차에 따른 전체적인 협조사항 및 질문지 구성, 통계처리 절차 등 이론과 실무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표 III-6〉 참조).

**표 III-6** 청소년 도덕성 지수개발을 위한 전원회의 소집 현황

차수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사항
1차	2011.5.6(금)	서울교대	총1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st의 4구성 요소 명확화</li> <li>- 도덕에 대한 개념 확인</li> <li>- 검사 방식</li> <li>- 기타사항</li> </ul>
2차	2011.6.24(금) -25(토)	여주 남한강 콘도	총1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도구 문제점 분석</li> <li>- 예비검사 방안</li> <li>- 청소년 도덕성 척도 개발을 위한 신뢰도/타당도 검증 계획서</li> <li>- 예비설문조사 점검 양식 제작</li> </ul>
3차	2011.7.16(토)	서울교대	총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성의 문항 판단방법</li> <li>- 채점방식</li> <li>- 인구통계변인</li> <li>- DIT관련 사항</li> <li>- 기타 및 행정사항</li> </ul>
4차	2011.8.21(일)	서울교대	총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덕적 판단력</li> <li>- 도덕적 감수성/동기화/품성화</li> <li>- 기타사항</li> <li>- 행정사항</li> </ul>

이와 같은 총괄회의를 통해,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개발팀은 공동보조를 맞춰서 자체 연구협의를 병행해왔다.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의 개발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개발 과정

## 제 4 장

---

# 연구 결과

1. 문항구성 및 채점방식
2. 무성의 반응 점검
3. 신뢰도 분석
4. 타당도 분석
5. 타당화 과정 및 수정
6. 문항 분석
7. 집단별 분석
8. 타지수와의 상관성 분석



# 제 4 장

## 연구 결과

### 1. 문항구성 및 채점방식

도덕적 동기화 검사의 요소에 해당하는 문항과 역채점 문항 및 채점방식은 <표 IV-1>과 같다. 하위항목에 따른 각 문항 번호와 함께 채점기준을 명시하였다.

**표 IV-1**    검사도구의 구조 및 채점방식

문항요소		문항번호	채점방식	
대항목	소항목	채 점		
도덕적 중심성	도덕의 자기 중요성	상재 1, 작품 1, 버스 1	15점	총 30점
	도덕적 감정	상재 2, 작품 2, 버스 2	15점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일치	상재 3, 작품 3, 버스 3	15점	총 30점
	도덕적 욕구	상재 4, 작품 4, 버스 4	15점	
긍정성	도덕에 대한 긍정성	상재 5, 작품 5, 버스 5	15점	총 30점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상재 6, 작품 6, 버스 6	15점	
허위 문항	* 관계없는 문항 상재 7문항	채점기준: 4점 이상의 학생은 삭제		
	*역채점 문항 작품4 & 작품7 버스4 & 버스7	채점 기준: 정-반 문항 간의 반응 차이가 3점 이상일 경우 무성의 문항으로 간주하고 통계분석에서 제외		

합산하면 ‘도덕적 동기화’ 90점 만점

## 2. 무성의 반응 점검

### 1) 무성의 문항의 채점과 반응

본 검사에서는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사례별로 무성의 문항을 포함시켰다. 무성의 문항은 피험자가 자기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기보다는 바람직하게 보이는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도이다. 본 검사는 첫째로 정-반 문항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무성의 반응을 체크하였다.

물론 반 문항을 역코딩하면 내용 상 정 문항과 비슷한 내용이 되고, 이들 문항에 대한 반응의 차이(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테면, ‘부서진 작품’의 경우 4번 문항(“나는 해니처럼 스스로 한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다”)과 무성의 응답을 가리는 7번 문항(“나는 스스로 한 일을 자신이 꼭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은 정-반 문항관계로, 7번 문항을 역코딩하면 4번과 내용상 비슷하게 반응해야 한다. 만일 4번 문항과 7번 문항간의 반응차이가 크다면 (3점 이상)피험자는 허위 또는 무성의로 반응했다고 볼 수 있다. ‘버스 안에서 생긴 일’의 사례에서도 문항 4와 무성의 문항 7번은 정-반 문항 관계이며, 4번 문항과 역코딩한 7번 문항 간의 반응차이가 3점 이상이라면 무성의 반응자로 체크하였다.

하지만 ‘상재의 결정’에서는 무관계한 질문에 반응하는 양상에 따라 무성의한 응답을 구분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무성의 반응을 제외한 검사도구의 모든 문항들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이며 그러한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인데 문항 7은(“나는 선생님에게 공정한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검사도구의 전반적인 경향과 다른 입장이다. 따라서 5점 척도에서 ‘매우 그렇다’ (5점)와 ‘그렇다’ (4점)척도의 반응은 적절치 않다. 본 연구는 4점 이상의 응답자를 무성의 응답으로 취급하였다.

이상의 무성의 응답기준을 요약하면 본 검사도구에서는 무성의 문항 응답자를 식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1] ‘부서진 작품’과 ‘버스 안에서 생긴 일’에서 문항 4와 역코딩한 문항 7(정-반 문항)간의 3점 이상의 차이가 나타날 때 무성의 응답자로 취급한다.

[기준 2] ‘상재의 결정’에서 문항7에서 4점 이상의 응답자는 무성의 응답자로 취급한다.

(1) [기준 1] 적용

먼저[기준 1]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 262명의 연구대상 중 허위반응은 모두 40명으로 제외율은 15.3% 였다(표 IV-3 참조).

**표 IV-2 [기준 1] 적용 시 제외 대상 및 통계분석 대상**

	중			고			합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연구대상(A)	58	58	116	65	81	146	123	139	262
허위반응(B) (통계제외)	10	7	17	12	11	23	22	18	40
제외비율 (B/A, %)	17.2	12	14.7	18.5	13.6	16	17.9	12.9	15.3
분석대상	48	51	99	53	70	123	101	121	222

무성의 응답자를 제외하기 이전의 검사도구의 신뢰도(262명)는 0.832이었지만 제거한 이후의 검사도구의(222명) 신뢰도는 0.857이었다. 따라서 [기준 1]의 적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기준 2] 적용

[기준 1]과 [기준 2]를 적용하였을 때 최종 응답자는 218명이다. 이는 전체 응답자 262명의 연구대상자 중 44명을 제거한 사례로 제외율은 16.8% 이다. [기준 1]에 따라 40명을 그리고 [기준 2]에 따라 4명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IV-3 [기준 2] 적용 시 제외 대상 및 통계분석 대상**

	중			고			합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연구대상(A)	58	58	116	65	81	146	123	139	262
기준1 적용	48	51	99	53	70	123	101	121	222
허위반응(B) (통계제외)	10	7	17	15	12	27	25	19	44
제외비율 (B/A, %)	17.2	12	14.7	23	14.8	18.5	20.3	13.7	16.8
분석대상	48	51	99	50	69	119	98	120	218

무성의 응답자를 제외하기 이전의 검사도구의 신뢰도(262명)는 제거 이전의 신뢰도는 0.832이었지만 [기준 2]를 적용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0.858로 신뢰도가 상승한다. [기준 1]을 적용한 검사도구의 신뢰도 (0.857)와 비교할 때도 0.01이지만 약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준 2]의 적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사례별 무성의 반응분석

사례별 무성의 문항 반응을 살펴보면, 버스와 작품의 사례처럼 역상관 문항 방식이 상재의 사례와 같은 무관계 문항 방식보다 나은 방식으로 나타났다.

무성의 문항의 각 사례와 도덕적 동기화 총점 및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요소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버스와 작품 사례의 문항 7은 모든 하위항목에서 역상관을 보이지만 상재의 사례는 부분적으로 역상관을 보이거나 정상관을 보이는 문항도 있어서 상재의 사례 문항7은 적합지 않았다.

표 IV-4 무성의 문항과 도덕적 동기화 하위항목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무성의 문항		
		상재7	작품7	버스7
도덕적 동기화 전체		.248**	-.410**	-.553**
대항목	도덕적 중심성	.260**	-.406**	-.524**
	도덕적 통합성	.211**	-.333**	-.502**
	긍정성	.176**	-.331**	-.413**
소항목	도덕의 자기 중요성	.197**	-.313**	-.410**
	도덕적 감정	.260**	-.400**	-.512**
	도덕적 자기일치	.102	-.228**	-.313**
	도덕적 욕구	.280**	-.361**	-.580**
	도덕적 긍정성	.304**	-.352**	-.411**
	낙관성	.008	-.206**	-.282**

\*\* . p<.01

### 3. 신뢰도 분석

#### 1) 내적일치도

신뢰도 점검을 위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인 크론바흐 알파를 하위요인별로 출하였다(〈표 IV-5〉). 도덕적 동기화 전체의 신뢰도는 .83로 높지만 하위 항목에서 긍정성이 다른 하위 항목인 도덕적 중심성이나 도덕적 통합성에 비해 낮게 나온다.

**표 IV-5**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별 신뢰도 계수

	문항수	신뢰도 계수
도덕적 중심성	6	.696
도덕적 통합성	6	.712
긍정성	6	.653
도덕적 동기화 전체	18	.858

(N=218)

도덕적 동기화의 전체 문항이 아니라, 각 하위항목별로 신뢰도 계수를 구할 때 각 문항별 제거 후 신뢰도 계수는 아래 표와 같았다(〈표 IV-6〉 참고). 모든 문항이 .60이상으로 신뢰도 있다.

표 IV-6 도덕적 동기화의 각 하위항목별 문항 삭제 후 신뢰도 계수

문항요소		문항번호	문항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대항목	소항목		
도덕적 중심성	도덕의 자기 중요성	상재 1	.68
		작품 1	.65
		버스 1	.62
	도덕적 감정	상재 2	.66
		작품 2	.66
		버스 2	.66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일치	상재 3	.65
		작품 3	.66
		버스 3	.63
	도덕적 욕구	상재 4	.68
		작품 4	.69
		버스 4	.72
긍정성	도덕에 대한 긍정성	상재 5	.62
		작품 5	.60
		버스 5	.63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상재 6	.60
		작품 6	.61
		버스 6	.60

(N=218)

## 2) 문항별 신뢰도

도덕적 동기화 전체 문항을 가지고 신뢰도 계수를 구할 때 각 문항별 제거 후 신뢰도 계수는 아래 표와 같았다 (<표 IV-7> 참고). 사례별 문항의 신뢰도 지수가 높았다.

표 IV-7 도덕적 동기화 신뢰도 계수(무성의 문항 삭제)

이야기 사례	문항번호	도덕적 동기화 하위항목	문항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상재(의 결정)	1번	도덕의 자기 중요성	.85
	2번	도덕적 감정	.85
	3번	도덕적 자기일치	.85
	4번	도덕적 욕구	.85
	5번	도덕에 대한 긍정성	.85
	6번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86
	7번	허위반응 문항	무성의 문항
(부서진) 작품	1번	도덕의 자기 중요성	.85
	2번	도덕적 감정	.85
	3번	도덕적 자기일치	.85
	4번	도덕적 욕구	.85
	5번	도덕에 대한 긍정성	.85
	6번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86
	7번	허위반응 문항	무성의 문항
버스 (안에서 생긴 일)	1번	도덕적 자기 중요성	.85
	2번	도덕적 감정	.85
	3번	도덕적 자기일치	.84
	4번	도덕적 욕구	.85
	5번	도덕에 대한 긍정성	.85
	6번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85
	7번	허위반응 문항	무성의 문항

(N=218)

## 4. 타당도 분석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의 구인타당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에 하위요인 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하위항목간의 공통성을 확인하였다.

### 1) 확인적 요인분석에 근거한 구인타당도

검사도구의 구인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부적절 문항을 판별하는 기준은 통계분석을 위한 2차 워크샵에서의 논의를 통해 아래 두 가지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기준 1] p 값이 .05 이하는 우선적으로 제외한다.

[기준 2] 첫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Beta 값이 .30 미만이면 제외한다.

먼저, [기준 1]에 따라 집단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IV-8>과 같다. 모든 값이 .05 이상을 만족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모든 하위요인은 [기준 1]을 통과한다. 또한 본 검사도구의 하위항목의 문항들은 Beta 값이 .30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기준 2] 역시 충족하고 있다.

**표 IV-8** 확인적 요인분석에 근거한 구인타당도

			Estimate	S.E.	Beta	C.R.	P
b	←	A	1.000		1.022		
a	←	A	0.795	0.069	0.947	11.568	***
c	←	B	1.000		0.745		
d	←	B	0.956	0.087	1.123	10.944	***
e	←	C	1.000		0.994		
f	←	C	0.880	0.111	0.639	7.926	***
상재1	←	a	0.426	0.099	0.309	4.324	***
작품1	←	a	0.429	0.081	0.378	5.315	***
버스1	←	a	1.000		0.803		

			Estimate	S.E.	Beta	C.R.	P
상재2	←	b	0.398	0.088	0.309	4.533	***
작품2	←	b	0.367	0.068	0.369	5.423	***
버스2	←	b	1.000		0.737		
상재3	←	c	0.364	0.082	0.333	4.452	***
작품3	←	c	0.361	0.071	0.391	5.069	***
버스3	←	c	1.000		0.967		
상재4	←	d	0.478	0.095	0.312	5.043	***
작품4	←	d	0.440	0.074	0.371	5.949	***
버스4	←	d	1.000		0.661		
상재5	←	e	0.554	0.112	0.334	4.927	***
작품5	←	e	0.340	0.082	0.282	4.145	***
버스5	←	e	1.000		0.751		
상재6	←	f	0.562	0.105	0.479	5.358	***
작품6	←	f	0.433	0.095	0.386	4.557	***
버스6	←	f	1.000		0.820		

모형 적합도 지수	절대적합지수		간명 적합지수	증분 적합지수	
	$\chi^2(p, df)$	RMSEA	$\chi^2/df$	NFI	CFI
분석결과	733.856 (.000, 126)	.147	5.824	.556	.589

A 도덕적 중심성, B 도덕적 통합성 C 긍정성  
a.도덕의 자기 중요성, b. 도덕적 감정, c. 도덕적 자기 일치,  
d 도덕적 욕구, e 도덕에 대한 긍정성, f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하지만 검사도구의 도덕적 동기화의 (사례 간) 3요인 모형은 적합하지 않았다. RMSEA 지수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이론 연구에 기반 한 3요인 모형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2) 탐색적 요인분석에 근거한 요인 탐색

### (1) 문항 전체의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행렬을 본다면 검사도구 문항내의 공통인 1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표 IV-9> 참고). 2요인은 작품사례(문항 1, 3, 4, 5, 6)와 상재사례(문항 1-6번)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사례(문항 1-6)는 작품과 상재 사례와는 다른 구인으로 나타났다.

**표 IV-9**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행렬(a)]

	요 인				
	1	2	3	4	5
버스3	0.764			-0.296	
버스1	0.722	-0.308			
버스2	0.681	-0.452			
버스5	0.679	-0.419			
버스4	0.633	-0.465			
버스6	0.534				
상재4	0.501	0.319		0.361	
상재5	0.476	0.243		0.410	
작품4	0.471	0.261		0.239	
작품1	0.469	0.362		0.244	-0.367
상재2	0.445	0.258		0.257	
작품2	0.422				-0.352
작품5	0.395	0.310			
상재1	0.380	0.315		0.270	0.257
상재6	0.332	0.274	0.311	-0.235	
작품3	0.466	0.501	-0.336	-0.353	
작품6	0.277	0.458	0.637	-0.219	
상재3	0.434	0.389	-0.458		0.205

요인추출 방법: 최대 우도.

a. 5요인이 추출되었습니다. 13의 반복계산이 요구됩니다.

5요인의 모형의 적합도는 타당한 것으로 지지되었다(〈표 IV-10〉 참고).

**표 IV-10** 5요인 모형의 적합도

카이제곱	자유도	p(유의도)	RMSEA
104.983	73	0.06	0.048

〈표 IV-11〉의 패턴행렬을 검토하면, 동기화 검사도구의 5요인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1요인은 버스 사례(문항1-6), 2요인은 작품과 상재사례 문항3(자기 일치), 3요인은 작품과 상재 사례 문항6(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4요인은 상재(1-5문항) 5요인은 작품 사례 문항1-5로 나타났다.

표 IV-11 탐색적 요인분석 [패턴행렬a]

	요 인				
	1	2	3	4	5
버스2	.823				
버스4	.809				
버스5	.789				
버스1	.735				
버스3	.721	.389			
버스6	.469		.234		
작품3		.757			-.304
상재3		.568		.440	
작품6			.859		
상재6			.557		
상재4				.669	
상재5				.658	
상재1				.615	
상재2				.515	
작품1					-.679
작품2					-.572
작품4				.216	-.427
작품5					-.344

이러한 결과는 연구 초기의 가정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계속하여 타당도를 충족시킬 대안을 발견해야만 했다.

(2) 하위항목별 탐색적 요인분석

하위항목별 탐색적 요인분석을 했을 경우 각 사례에서 2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긍정성의 하위항목을 기준으로 문항들을 분석하였을 때 사례에 관계없이 1요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버스 사례가 가 도덕적 통합성에서는 독자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례들 간에 도덕적 중심성과 도덕적 통합성의 요인이 공통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버스 사례가 독립 요인으로서 요인 부하수치가 다른 사례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12 하위항목별 탐색적 확인 분석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긍정성		
	요 인			요 인			요 인	
	1	2		1	2		1	2
버스2	0.999		버스4	0.999		작품6	0.947	
버스1	0.618	0.262	버스3	0.551	0.445	상재6	0.517	
작품1		0.700	작품3		0.732	작품5	0.333	0.325
작품2	0.239	0.488	상재3		0.711	버스5		0.647
상재1		0.465	상재4		0.461	버스6	0.269	0.503
상재2	0.223	0.458	작품4		0.376	상재5	0.210	0.422

요인추출 방법: 최대 우도.

### 3) 상관분석

하위항목 간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표 IV-13〉 참고). 상관관계 분석 후 소항목 간의 상관은 .281에서 .628 이었다. 낙관성은 특별히 동기화의 다른 하위항목들 간의 상관정도가 .281에서 .369로 낮았다. 하지만 동기화 평균과의 상관은 .682로 높은 편이다. 동기화 전체와 각 하위항목 간의 상관은 .624에서 .818로 전반적으로 높아서,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 소항목은 안정된 구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V-13 도덕적 동기화의 소 항목간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a	b	c	d	e	f	g
a	1	.561**	.449**	.590**	.591**	.360**	.774**
b	.561**	1	.476**	.628**	.545**	.281**	.770**
c	.449**	.476**	1	.470**	.387**	.333**	.723**
d	.590**	.628**	.470**	1	.632**	.387**	.818**
e	.591**	.545**	.387**	.632**	1	.369**	.773**
f	.360**	.281**	.333**	.387**	.369**	1	.624**
g	.774**	.770**	.723**	.818**	.773**	.624**	1

\*\* .p<.01

a.도덕의 자기 중요성, b. 도덕적 감정, c. 도덕적 자기 일치,

d 도덕적 욕구, e 도덕에 대한 긍정성, f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g 동기화 총점

대항목간의 상관은 .592에서 .696로서, 대항목간 독립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항목과 도덕적 동기화 총점과도 상관은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덕적 동기화 전체 문항이 하나의 구인으로 서 묶일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표 IV-14 도덕적 동기화의 대 항목간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도덕적중심성	도덕적통합성	긍정성	동기화평균
도덕적중심성	1	.696**	.593**	.873**
도덕적통합성	.696**	1	.592**	.890**
긍정성	.593**	.592**	1	.837**
동기화평균	.873**	.890**	.837**	1

\*\* .p<.01

## 5. 타당화 과정 및 수정

본 연구는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에 입각한 검사도구 개발이기 때문에 사례 개발 및 문항 개발에서의 내용타당도를 전제하였다. 검사도구와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첫째, 전체 회의를 통해 팀 간 검사도구의 이론 적합도를 검토하였고, 둘째, 교사와 학생의 자문을 통해 사례와 검사도구의 문항 진술을 검토하여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셋째, 도덕성 연구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사도구의 각 문항들을 수정하였다. 전문가는 도덕적 검사도구의 문항 전체에 대한 이론 적합성은 인정하였지만 과연 이론적 구인이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도덕적 동기화 에 대한 공인된 연구인 Aquino와 Reed(2002, 2009)가 개발한 도덕적 정체성 검사도구 문항과 Nunner- Winkler(2007)의 검사도구의 문항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검사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4구성요소 모형에 근거한 단일한 검사도구의 일부가 될 도덕적 동기화 검사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검사도구의 요인구성 및 문항 유형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팀 간의 검사도구의 형태를 통일하기 위해 전체 회의에서 3요인 6문항의 3사례로 이루어진 검사도구 모형에 합의하였다. 이에 도덕적 동기화의 이론적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사례 간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긍정성의 3요인 모형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본 연구가 사례 간 3요인 모형은 지지되지 않았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모든 검사도구를 관통하는 한 요인이 있으며, 요인 수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자기일치와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각 사례의 주제(핵심가치)들이 요인으로 추출되어 총 5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5요인 모형은 RMSEA 값이 0.05이하인 0.048이기 때문에 적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의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에서 사례 자체가 독립 요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구인 타당화

사례 별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1요인이 추출되었다(〈표Ⅳ-15〉 참고). 사례의 문항간 요인 부하량은 0.814부터 0.24로 나타났다. 사례 내의 요인 부하량을 검토해 보면 문항 6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문항 3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이야기 사례별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행렬(a)					
상재의 결정	요인	부서진 작품	요인	버스 안에서 생긴 일	요인
	1		1		1
상재4	0.726	작품1	0.748	버스2	0.814
상재5	0.656	작품4	0.580	버스5	0.793
상재2	0.623	작품2	0.557	버스4	0.788
상재1	0.599	작품5	0.555	버스1	0.778
상재3	0.543	작품3	0.483	버스3	0.733
상재6	0.240	작품6	0.384	버스6	0.524

요인추출 방법: 최대 우도.

하지만 요인1로 설명된 총 분산은 약 35%~55% 사이로 누적분산비율의 바람직한 지수인 7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하지만 각 사례에서 2요인 모형이나 3요인 모형으로 설정할 경우 모형 유의도가 타당하지 않았다.

표 IV-16 이야기 사례의 누적분산 비율

	상재의 결정	부서진 작품	버스 안에서 생긴 일
설명된 총 분산(%)	34.29	31.59	55.50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도덕성 검사의 구인 모형을 사례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요인 모형으로부터 6요인 모형을 구분하여 모형 적합도를 확인할 때 문항을 삭제하는 것(3요인 문항의 문항 6삭제, 혹은 문항 3 삭제)보다 구인을 추가한 4요인이나 5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3과 문항6의 진술을 개선하여 문항 적합도를 높이는 모델이 바람직하다.

표 IV-17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 모형 적합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RMSEA
3요인 모형	248.991	102	.000	0.082
3요인 모형 (문항 6삭제)	162.761	75	.000	0.073
3요인 모형 (문항 3삭제)	126.507	63	.000	0.068
4요인 모형	142.460	74	.000	0.065
5요인 모형	104.983	73	.008	0.0448
6요인 모형	59.807	49	.139	0.031

## 2) 이야기 주제의 타당화

본 검사의 3요인 모형에 따른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버스 사례가 상재사례나 작품 사례와는 다른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통 요인을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례 간 공통성을 위해 사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버스 사례가 다른 두 사례에 비해 요인 부하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두 사례에 비해 월등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상재와 작품 사례에 비해 이야기 사례를 쉽게 지각하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작품과 상재 사례처럼 고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반대로 버스 사례가 상재와 작품 사례에 비해 너무 쉽게 지각되는 도덕적 사례일 수 있다는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상재의 사례는 더욱 Rest 이론의 전형적 사례이다. 신 Kohlberg 학파로 분류되는 Rest의 도덕관은 Kohlberg의 이론과 거시 도덕에 기울어져 있다. 거시 도덕은 사회적 차원의 협력체계(특히 친구 사이가 아니라 낯선 사람간의 협력)를 구축하기 위한 조건으로 불편부당성과 공유된 이상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Rest et al, 1999; 정창우, 2004, p. 601). 물론 Kohlberg와 달리 미시 도덕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실생활에서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도덕적 이슈 역시 도덕의 영역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버스 사례는 미시 도덕의 전형적 사례이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로서 일상적인 상호관계에서 공감적 태도를 갖는 미시 도덕의 사례이다.

이러한 Rest의 도덕관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왜 버스 사례가 요인 부하량이 높으며 다른 두 사례가 상대적으로 낮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적 해석만으로 보다 설명력 있는 사례로 나타난 버스 사례를 제거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았다.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야기 사례가 하나의 구인으로 해석되는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사례가 적어도 거시도덕과 미시도덕의 다른 도덕관일지라도 사례 간 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이야기가 담고 있는 주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팀은 이야기 선정과 검사도구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기위해 고등학교 한 반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Nunner-Winkler(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와 관련된 이야기 주제를 한국의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번안한 이야기 사례를 추가로 개발하였다(〈표 IV-18〉참고). 이야기의 주인공은 낯선 사람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더 큰 이익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 지키기로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 도덕과 미시 도덕 모두 해석될 수 있는 이슈이다.

표 IV-18      공정한 거래의 이야기 사례

**“벼룩시장에서 생긴 일”**

성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작은 벼룩시장이 열렸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성하는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형 플레이스테이션 2를 이번 기회에 팔려고 들고 나왔다.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샀지만 이제는 오래된 게임기이고 자신도 많이 사용하였기에, 성하는 7만원으로 가격표를 붙였다. 곧 비슷한 또래의 학생이 다가와 가격표를 보더니, 조금 비싸다며 5만원으로 하자고 하였다. 성하는 그 가격도 괜찮다 싶어 팔려고 하였는데, 그 학생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돈을 가지러 집에 들러야 한다고 말하며 15분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바쁘지 않았던 성하는 벼룩시장을 둘러보고 있을 테니 다녀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떠나자마자 다른 학생이 다가와 게임기를 7만원에 바로 사겠다고 하였다. 성하는 그 제안에 많이 망설여졌지만, 먼저 한 약속이 있기에 거절하였다.

이야기 사례 간의 공통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 사례의 모형을 두었다(〈표 IV-19〉 참고). 1요인으로 고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누적된 총 분산량이 클수록 사례가 보다 공통된 사례로서 해석할 수 있다. 모형1과 2모두 보통정도로 적합하며, 모형2(상재, 작품, 시장)가 모형1(상재, 작품, 버스)보다 설명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사례 모형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모형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RMSEA	총 누적 분산량(%)
모형1 (상재, 작품, 버스)	320.96	252	.002	0.0859	13.611
모형2 (상재, 작품, 시장)	172.506	135	.016	0.0866	31.12
모형3 (상재, 버스, 시장)	59.807	49	.139	0.1732	13.128

## 6. 문항 분석

각 문항별 반응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표 IV-20, 21, 22〉 참고). 전반적으로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에서 28-98%에 이르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은 문항 내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사례에 관계없이 자신의 동기화 수준을 정확히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례 별, 문항 별 내용 타당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만한 점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50%이상으로 나오는 것에 비해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은 50%이하로 나타난다. 특히 ‘어려움 문제에 부딪혀도 공정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 는 문항이나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40% 미만의 학생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에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자신과 삶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도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음 연구에서 심층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표 IV-20 ‘상재의 결정’ 이야기 사례의 문항분포

문항요소		문항내용	상재의 결정				
대항목	소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도덕적 중심성	도덕의 자기 중요성	1.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소중하다.	70 (32.1)	117 (53.7)	24 (11)	7 (3.2)	0
	도덕적 감정	2.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72 (33)	111 (50.9)	24 (11)	9 (4.1)	2 (9)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 일치	3.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40 (18.3)	72 (33)	74 (33.9)	32 (14.7)	0
	도덕적 욕구	4.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싶다.	74 (33.9)	105 (48.2)	29 (13.3)	9 (4.1)	1 (0.5)
긍정성	도덕에 대한 긍정성	5.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88 (40.4)	90 (41.3)	30 (13.8)	8 (3.7)	2 (0.9)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6.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공정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	11 (5)	51 (23.4)	100 (45.9)	54 (24.8)	2 (0.9)
무성의 문항		7. 나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정한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0	23 (10.6)	54 (24.8)	92 (42.2)	49 (22.5)

표 IV-21 '부서진 작품' 이야기 사례의 문항분포

부서진 작품							
문항요소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항목	소항목						
도덕적 중심성	도덕의 자기 중요성	1. 해니처럼 자신의 일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소중하다.	84 (38.5)	120 (55)	11 (5)	3 (1.4)	0
	도덕적 감정	2. 만일 스스로 한일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96 (44)	108 (49.5)	10 (4.6)	4 (1.8)	0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 일치	3. 해니처럼 스스로 책임질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40 (18.3)	99 (45.4)	65 (29.8)	11 (5)	2 (0.9)
	도덕적 욕구	4. 나는 해니처럼 스스로 한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다.	60 (27.5)	123 (56.4)	32 (14.7)	3 (1.4)	0
긍정성	도덕에 대한 긍정성	5. 나는 해니처럼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94 (43.1)	105 (48.2)	14 (6.4)	5 (2.3)	0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6.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16 (7.3)	69 (31.7)	99 (45.4)	34 (15.6)	0
무성의 문항		7. 나는 스스로 한 일을 자신이 꼭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69 (31.7)	104 (47.7)	37 (17)	7 (3.2)	1 (0.5)

표 IV-22 '버스 안에서 생긴 일' 이야기 사례의 문항분포

버스 안에서 생긴 일							
문항요소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항목	소항목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자기 중요성	일표처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소중한다.	89 (40.8)	105 (48.2)	20 (9.2)	2 (0.9)	2 (0.9)
	도덕적 감정	만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나도 일표처럼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85 (39)	93 (42.7)	27 (12.4)	10 (4.6)	3 (1.4)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 일치	일표처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61 (28)	80 (36.7)	64 (29.4)	10 (4.6)	3 (1.4)
	도덕적 욕구	나는 일표처럼 자신이 조금 지쳐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고 싶다.	70 (32.1)	109 (50)	23 (10.6)	12 (5.5)	4 (1.8)
긍정성	도덕에 대한 긍정성	나는 일표처럼 자신이 지쳤어도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113 (51.8)	85 (39)	15 (6.9)	3 (1.4)	2 (0.9)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	34 (15.6)	89 (40.8)	68 (31.2)	24 (11)	3 (1.4)
무성의 문항		나는 자신이 지쳐있을 때는 꼭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동주의 행동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36 (16.5)	56 (25.7)	69 (31.7)	50 (22.9)	7 (3.2)

## 7. 집단별 분석

### 1) 전체 평균 및 분포

도덕적 동기화 전체 및 대항목의 전체 평균 및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 IV-23>과 같다. 도덕적

동기화 전체는 만점이 90점일 때 최대값이 90점으로 나타났고, 평균은 71.56이었다.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낙관성 모두 최대값은 30점 만점이었다. 낙관성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으며 도덕적 중심성이 가장 높았다.

**표 IV-23** 도덕적 동기화의 평균 및 분포(대항목, 도덕적 동기화 전체)

통계치	대항목			도덕적 동기화 전체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낙관성	
N	218	218	218	218
평균	25.33	23.4	22.83	71.56
표준편차	2.85	3.29	2.98	7.9
왜도	-.33	-.05	.18	-.09
첨도	.08	-.29	-.39	-.05
최소값	16	14	16	48
최대값	30	30	30	90

도덕적 동기화 하위항목의 전체 평균 및 분포를 살펴보면 <표 IV-24>와 같다. 모든 항목의 최대값은 만점이었으며, 도덕적 자기 일치의 항목의 최소값이 가장 낮았다.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의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도덕에 대한 긍정성이 가장 높았다.

**표 IV-24** 도덕적 동기화의 평균 및 분포(소항목)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긍정성	
	도덕의 자기 중요성	도덕적 감정	도덕적 자기 일치	도덕적 욕구	도덕에 대한 긍정성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N	218	218	218	218	218	218
평균	12.72	12.6	11.14	12.26	12.88	9.96
표준편차	1.53	1.69	2.16	1.69	1.68	.64
왜도	-.28	-.63	-.02	-.25	-.43	.20
첨도	-.37	.64	-.50	-.26	-.13	-.10
최소값	9	7	5	7	7	6
최대값	15	15	15	15	15	15

## 2) 학교급별 비교

도덕적 동기화 전체 및 대항목, 소항목의 학교급별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덕적 동기화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IV-25〉 참고). 그러나 소항목에서는 도덕적 감정, 도덕적 긍정성, 대항목에서는 도덕적 중심성에서 중학생이 약간 높게 나오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IV-25 학교급별 도덕적 동기화의 비교**

구 분	중학생(N=99)		고등학생(N=119)		t 값	유의도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항목	도덕의 자기 중요성	12.94	1.5	12.55	1.53	1.90	.06
	도덕적 감정	12.87	1.73	12.38	1.64	2.14	.03*
	도덕적 자기일치	12.42	1.49	11.69	11.4	-.69	.49
	도덕적 욕구	12.45	1.75	12.1	1.62	1.55	.13
	도덕적 긍정성	13.18	1.57	12.63	1.74	2.46	.02*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9.99	1.86	9.93	1.98	.22	.83
대항목	도덕적 중심성	25.8	2.78	24.92	2.85	2.3	.02*
	도덕적 통합성	23.48	3.3	23.34	3.3	.33	.74
	긍정성	23.17	2.78	22.56	3.13	1.52	.13
도덕적 동기화 총점		72.46	7.46	70.8	8.22	1.54	.13

\* p<.05

## 3) 성별 비교

### (1) 전체 집단의 성차

도덕적 동기화 총점을 보면, 남학생(71.18)과 여학생(71.88)의 평균차이가 거의 없다.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 항목에서는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을 제외하고는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6) 참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신과 삶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연구대상 청소년의 도덕적 동기화에서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6**    도덕적 동기화의 남녀 성차

구 분	남(N=98)		여(N=120)		t 값	유의도(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소 항 목	도덕의 자기 중요성	12.64	1.57	12.79	1.5	-.64	.52
	도덕적 감정	12.53	1.72	12.66	1.68	-.71	.48
	도덕적 자기일치	11.14	2.2	11.14	2.14	-.55	.58
	도덕적 욕구	12.22	1.76	12.29	1.63	.00	1.0
	도덕적 긍정성	12.94	1.75	12.83	1.63	-.29	.77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9.7	2.15	10.17	1.7	-1.74	.08*
대 항 목	도덕적 중심성	25.17	2.86	25.45	2.84	-.71	.48
	도덕적 통합성	23.37	3.34	23.43	3.28	-.15	.88
	긍정성	22.64	3.37	23	2.63	-.86	.39
도덕적 동기화 총점		71.18	8.21	71.88	7.67	-.64	.52

\* p<.10

(2) 중학생 집단의 성차

중학생의 도덕적 동기화의 남녀차를 살펴보면, 남학생(73.38)과 여학생(71.61) 간의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 유의도는 검출되지 않았다 (< 표 IV-27> 참고). 이러한 추세는 각 하위요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 중학생의 도덕적 동기화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7 중학생의 도덕적 동기화의 성차

구 분	남(N=48)		여(N=51)		t 값	유의도(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소 항 목	도덕의 자기 중요성	13.02	1.44	12.86	1.58	.52	.16
	도덕적 감정	13.08	1.66	12.67	1.79	1.2	.42
	도덕적 자기일치	11.17	2.28	10.9	2.29	.58	.26
	도덕적 욕구	12.6	1.85	12.31	1.66	.82	.29
	도덕적 긍정성	13.31	1.7	13.06	1.43	.80	.25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10.19	2.17	9.8	1.51	1.02	.38
대 항 목	도덕적 중심성	26.1	2.63	25.53	2.92	1.03	.57
	도덕적 통합성	23.77	3.26	23.22	3.35	.84	.56
	긍정성	23.5	3.25	22.86	2.24	1.13	.64
도덕적 동기화 총점		73.38	7.67	71.61	7.22	1.18	1.77

(3) 고등학생 집단의 성차

고등학생의 도덕적 동기화의 총점은 중학생과는 달리 여학생(72.09)이 남학생(69.0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IV-28> 참고). 하위 대항목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도덕적 중심성과 긍정성의 평균이 약간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하위 소항목에서는 도덕적 감정과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고등학생 집단의 성차는 부분적으로 유의하다.

표 IV-28 고등학생의 도덕적 동기화의 성차

구 분	남(N=50)		여(N=69)		t 값	유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소항목	도덕의 자기 중요성	12.28	1.62	12.74	1.45	-1.6	.11
	도덕적 감정	12	1.62	12.65	1.6	-2.18	.03*
	도덕적 자기일치	11.12	2.15	11.32	2.01	-.51	.61
	도덕적 욕구	11.86	1.60	12.28	1.63	-1.38	.17
	도덕적 긍정성	12.58	1.74	12.67	1.75	-.27	.79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9.24	2.04	10.43	1.79	-3.39	.00**
대항목	도덕적 중심성	24.28	2.82	25.39	2.8	-2.13	.03*
	도덕적 통합성	22.98	3.4	23.59	3.24	-1.00	.32
	긍정성	21.82	3.32	23.1	2.9	-2.24	.03*
도덕적 동기화 총점		69.08	8.24	72.09	8.04	-1.97	.05*

\* p<.05 \*\* p<.01

4) 부모의 학력에 따른 비교

부모학력에 따른 도덕적 동기화의 비교에서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9〉 참고).

**표 IV-29** 부학력에 따른 도덕적 동기화의 차이

구 분	부학력				t 값	유의도 (p)	
	고졸이하(N=81)		전문대졸이상 (N=136)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소 향 부	도덕의 자기 중요성	12.95	1.32	12.58	1.63	1.8	.70
	도덕적 감정	12.85	1.65	12.46	1.71	1.67	.96
	도덕적 자기일치	10.96	2.20	11.27	2.13	-1.02	.31
	도덕적 욕구	12.37	1.72	12.19	1.68	0.75	.45
	도덕적 긍정성	13.06	1.50	12.76	1.78	1.26	.21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10.11	1.76	9.87	2.02	.90	.37
대 향 부	도덕적 중심성	25.80	2.52	25.04	3.01	1.92	.06
	도덕적 통합성	23.33	3.19	23.46	3.38	-2.80	.78
	긍정성	23.17	2.60	22.63	3.19	1.36	.18
도덕적 동기화 총점		72.30	6.93	71.13	8.46	1.11	.27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도덕적 동기화의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의 평균이 도덕적 자기 중요성, 도덕적 감정의 소항목에서 그리고 도덕적 중심성의 대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았다.

**표 IV-30 모학력에 따른 도덕적 동기화의 차이**

구 분	모학력				t 값	유의도	
	고졸이하(N=92)		전문대졸이상(N=124)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소 항 목	도덕의 자기 중요성	13.03	1.43	12.53	1.55	2.43	.02*
	도덕적 감정	13.01	1.49	12.35	1.72	2.93	.00**
	도덕적 자기일치	11.23	2.22	11.14	2.07	.31	.76
	도덕적 욕구	12.52	1.66	12.10	1.68	1.81	.07
	도덕적 긍정성	13.15	1.53	12.72	1.75	1.9	.06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10.10	1.75	9.88	2.05	.84	.40
대 항 목	도덕적 중심성	26.04	2.58	24.89	2.84	3.07	.00**
	도덕적 통합성	23.75	3.27	23.24	3.22	1.14	.26
	긍정성	23.25	2.66	22.60	3.17	1.60	.11
도덕적 동기화 총점		73.04	7.30	70.72	7.98	2.19	.03*

\*p<.05 \*\*p<.001

5) 종교의 유무에 따른 비교

종교의 유무에 따른 도덕적 동기는 종교가 있는 경우 약간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긍정성의 대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IV-31〉 참고). 종교를 가진 학생들은 보다 도덕은 물론 자신과 삶에 대해 약간 더 낙관적이었다. 따라서 긍정성을 제외하고는 도덕적 동기화의 모든 항목에서 종교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종교의 유무에 따른 도덕적 동기화의 차이

구 분	있다(N=135)		없다(N=83)		t 값	유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소 항 목	도덕의 자기 중요성	12.77	1.43	12.65	1.68	.56	.58
	도덕적 감정	12.70	1.60	12.43	1.84	1.14	.25
	도덕적 자기일치	11.27	2.22	10.94	2.06	1.08	.28
	도덕적 욕구	12.41	1.61	12.02	1.79	1.64	.10
	도덕적 긍정성	13.04	1.62	12.61	1.76	1.84	.07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10.13	1.83	9.67	2.05	1.72	.09
대 항 목	도덕적 중심성	25.47	2.64	25.08	3.16	.05	.33
	도덕적 통합성	23.67	3.22	22.96	3.39	.68	.12
	긍정성	23.18	2.81	22.29	3.18	.29	.03*
도덕적 동기화 총점		72.33	7.44	70.34	8.52	.12	.07

\*p<.05

6) 도덕과목 흥미도에 따른 비교

도덕과목 흥미도에 따른 도덕적 동기화를 살펴보면 도덕적 욕구의 소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그 외의 모든 도덕적 동기화의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32〉 참고). 도덕 과목을 재미있게 생각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도덕적 욕구가 약간 높았다.

**표 IV-32** 도덕과목 흥미도에 따른 동기화의 차이

구 분	재미있다 (N=88)		보통 (N=89)		재미없다 (N=40)		F 값	유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소 항 목	도덕의 자기 중요성	12.83	1.56	12.65	1.44	12.63	1.69	.39	.68
	도덕적 감정	12.69	1.78	12.48	1.69	12.65	1.53	.36	.70
	도덕적 자기일치	11.35	2.19	10.90	2.08	11.28	2.26	1.05	.35
	도덕적 욕구	12.58	1.76	12.19	1.48	11.73	1.87	3.74	.03*
	도덕적 긍정성	13.2	1.7	12.72	1.64	12.58	1.65	2.75	.07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10.01	2.00	10.02	1.81	9.7	2.03	.44	.65
대 항 목	도덕적 중심성	25.52	2.90	25.13	2.80	25.28	2.91	.41	.66
	도덕적 통합성	23.93	3.40	23.09	2.99	23	3.65	1.84	.16
	긍정성	23.22	3.09	22.74	2.81	22.28	3.12	1.46	.23
도덕적 동기화 총점		72.67	8.12	70.97	7.41	70.55	8.52	1.44	.24

\*p<.05

7) 친구 수에 따른 비교

친구 수에 따른 도덕적 동기화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친구 수에 따른 도덕적 동기화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3〉 참고). 자기 중심성, 도덕적 욕구, 도덕적 긍정성의 소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대항목에서는 도덕적 중심성과 도덕적 통합성, 긍정성 모두 친구 수에 따라 도덕적 동기화의 평균이 약간 높지만, 긍정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표 IV-33 친구 수에 따른 도덕적 동기화의 차이

구 분	5명 이하 (N=56)		6-10명 (N=86)		10명 이상 (N=76)		F 값	유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소 항 목	도덕의 자기 중요성	12.39	1.55	12.63	1.55	13.08	1.544	3.62	.03*
	도덕적 감정	12.41	1.80	12.5	1.69	12.86	1.61	1.37	.26
	도덕적 자기일치	11.16	2.39	10.86	2.09	11.45	2.05	.50	.23
	도덕적 욕구	12	1.95	12.07	1.62	12.67	1.49	3.55	.03*
	도덕적 긍정성	12.59	1.6	12.72	1.64	13.28	1.73	3.41	.04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9.48	1.95	9.97	1.93	10.3	1.85	2.99	.05*
대 항 목	도덕적 중심성	24.8	2.82	25.13	2.96	25.93	2.66	2.94	.06
	도덕적 통합성	23.16	3.83	22.93	3.25	24.12	2.81	2.87	.06
	긍정성	22.07	3.03	22.69	2.90	23.58	2.91	4.44	.01*
도덕적 동기화 총점		70.04	8.30	70.74	2.90	23.58	2.91	4.23	.02*

\* p<.05

8) 도덕적 동기화의 향상 요인

이상의 결과에서 도덕적 동기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표Ⅳ-3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도덕적 동기화는 어머니의 학력과 종교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 요인 중 도덕적 중심성은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긍정성은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종교를 갖을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4**    도덕적 동기화의 향상 요인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b	$\beta$	t	p	b	$\beta$	t	p
(상수)	26.513		19.705***	.000	23.742		14.946**	.000
학년	-.612	-.109	-1.284	.201	.032	.005	.057	.955
성별	.234	.042	.596	.552	.133	.020	.287	.774
부학력	.131	.054	.577	.565	.327	.115	1.215	.226
모학력	-.522	-.211	-2.441*	.016	-.490	-.170	-1.941	.054
도덕과목흥미도	.065	.040	.565	.573	-.169	-.088	-1.245	.215
종교여부	-.133	-.088	-1.288	.199	-.207	-.118	-1.698	.091
친구수	.259	-.097	1.377	.170	-.305	.098	1.375	.171
R(R2)	.283(.080)				.231(.053)			
F(p)	2.577*(.014)				1.671*(.014)			
	긍정성				도덕적 동기화 전체			
	b	$\beta$	t	p	b	$\beta$	t	p
(상수)	23.396		16.379**	.000	73.651		19.697**	.000
학년	-.108	-.018	-.213	.832	-.687	-.044	-.519	.604
성별	.301	.050	.722	.471	.668	.043	.612	.541
부학력	.103	.040	.426	.670	.561	.083	.887	.376
모학력	-.467	-.177	-2.056*	.041	-1.48	-.215	-2.488*	.014
도덕과목흥미도	-.112	-.064	-.916	.361	-.216	-.047	-.676	.500
종교여부	-.273	-.169	-2.487*	.041	-.613	-.145	-2.135*	.034
친구수	.422	.148	2.113*	.036	.986	.132	1.887	.061
R(R2)	.301(.091)				.294(.086)			
F(p)	2.956**(.006)				2.795**(.008)			

8. 타지수와의 상관성 분석

Rest(1983)의 모형에서 제시된 4개의 요소들은 모두 도덕적 행동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심리적

과정들이다. 그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도덕적 행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요소들은 모두 도덕적 행동의 결정인자가 된다.

Rest(1983)에 의하면 4구성 요소는 서로 다른 심리적 변수이기 때문에 상관 정도가 높지 않다. 감수성(1요소)과 판단력(2요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이 양자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ebeau, 1985; 홍성훈, 2000; 문미희, 2004; 이지혜, 2005). 동기화나 품성화와의 도덕 판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Narvaez & Rest(2005[1995], p. 503)에 따르면, 한 요소에 너무나 많은 주의를 쏟는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요소들의 역할이 작아져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첫 번째 행동을 하는 도중에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가령 굳건함과 결의(제4요소인 도덕적 동기화)는 감수성(제1요소)을 방해할 수 있다.<sup>3)</sup>

4구성 요소간의 상호작용이 복잡해서 종종 도덕과는 관계가 없는 행동에 대한 원인을 분류해 내기 어렵게 만든다(2005[1995], pp. 501-502). 상황 내에서 사소한 변화로 보이는 모든 종류의 변인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근처에 있는 사람의 수, 참여한 사람들의 성별, 바로 이전의 경험, 참가자의 매력 등이 있다.

1차 연구 결과를 볼 때, 감수성-동기화-품성화간의 상관관계는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도덕적 동기화-감수성은 .362로 미약한 상관관계이며 도덕적 동기화-품성화는 .591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P지수는 품성화나 감수성과는 의미 있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으며, P지수가 도덕적 동기화와는 역(-)상관성을 보이고 있다(〈표 IV-35, 36〉 참고).

**표 IV-35** 각 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감수성	KDIT-P지수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감수성	1			
KDIT-P지수	.078	1		
도덕적 동기화	.362***	-.011	1	
도덕적 품성화	.489***	.121	.591***	1

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r)

\*\*\* p<.001

3)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또 다른 세 가지의 입장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첫째, 도덕적 행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선후의 관계도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입장이다. 즉 감수성에 따라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판단에 따라 감수성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각 지수의 하위요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 지수간의 상관성이 일대일(-對-)의 형식으로만 도식화되지 않고 일대다(-對多)의 형식으로도 도식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의 상관관계는 일대일의 상관성에 국한되어 분석이 이루어지지만, 의식의 문제, 특히 다양한 가변성이 수반되는 가치의식의 경우 보다 다층적인 조합구도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감수성				동기화										품성화											
상황 지각	결과 지각	책임 지각	전체	중심성			통합성			공정성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						
				자기 중요 성	자기 감정	전체	자기 일치	전체	의무	전체	긍정성	낙관성	전체	인지적 전략	자기 조절	전체	용기	자아 효능감	전체	사회적 기술	의사소 통능력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																									
.773																									
.491	.613																								
.876	.918	.805																							
.055	.048	.101	.078																						
.149	.235	.404	.301	.002																					
.182*	.316	.363	.329	.057	.615																				
.185*	.309	.425	.351	.034	.887	.910																			
.153	.219	.312	.262	.031	.432	.417	.472																		
.081	.171	.322	.219	-.052	.534	.507	.578	.346																	
.149	.241	.383	.295	-.004	.575	.550	.625	.881	.749																
.110	.173	.267	.210	-.086	.522	.429	.526	.315	.602	.526															
.132	.269	.273	.257	-.014	.437	.371	.447	.425	.356	.480	.324														
.150	.277	.331	.290	-.056	.581	.486	.590	.461	.569	.613	.762	.859													
.187	.320	.441	.362	-.011	.787	.749	.853	.708	.737	.872	.704	.693	.855												
.349	.556	.458	.522	.049	.414	.423	.466	.297	.352	.387	.306	.412	.448	.503											
.242	.451	.395	.416	.155	.273	.455	.410	.284	.347	.375	.322	.359	.419	.467	.640										
.326	.556	.471	.518	.113	.379	.485	.483	.320	.386	.421	.347	.426	.479	.535	.904	.907									
.312	.453	.359	.431	.029	.420	.466	.494	.278	.290	.342	.281	.355	.395	.475	.716	.664	.762								
.100	.262	.337	.266	.057	.346	.378	.403	.361	.352	.433	.282	.572	.544	.535	.511	.550	.586	.445							
.227	.406	.407	.397	.052	.444	.489	.520	.380	.381	.461	.330	.559	.561	.597	.705	.704	.778	.808	.887						
.222	.305	.210	.283	.063	.296	.224	.287	.119	.287	.229	.267	.264	.325	.325	.496	.325	.453	.406	.315	.417					
.166	.353	.359	.335	.189*	.314	.242	.307	.247	.282	.317	.235	.378	.386	.391	.539	.511	.580	.476	.570	.620	.306				
.237	.408	.358	.384	.161	.377	.289	.368	.232	.352	.341	.309***	.401***	.442***	.446***	.641***	.524***	.643***	.548***	.558***	.649***	.778***	.836***			
.298	.516	.465	.489	.121	.448	.477	.515	.350	.419	.459	.370***	.518***	.554***	.591***	.848***	.808***	.915***	.796***	.758***	.909***	.608***	.754***	.848***		

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r)  
 \* p<.05 \*\* p<.01 \*\*\* p<.001



## 제 5 장

---

#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활용 방안 및 정책 방안
3. 2차년도 연구 세부 계획



# 제 5 장

## 논의 및 결론

###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에 근거하여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est의 3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에 근거하여 도덕적 동기화의 개념적 정의와 특징을 파악하였다.

둘째,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의 이론적 구조를 구성하였다. 도덕적 동기화의 구성요소를 대항목 및 소항목 수준에서 확정하기 위해 Rest가 언급한 도덕적 동기화 관련 이론 및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정서, 낙관성에 대한 경험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였다. 도덕적 정체성 이론으로는 이론적 배경으로는 Blasi와 Lapsley의 이론을 그리고 검사도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Aquino & Reed의 연구(2002)를 참조하였다. 또한 Nunner-Winkler의 연구에 따라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회나 죄책감을 귀인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2007)을 작성하였다. 긍정성에 대한 연구로는 긍정심리학과 청소년의 낙관성 및 정신건강에 대한 경험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검사도구는 도덕적 동기화의 3요인 모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모형은 실질적으로 3개의 대항목(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긍정성)과 6개의 소항목( 각 대항목에 2개의 하위 소항목을 설정: 도덕의 자기 중요성과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 중심성과 도덕적 감정, 도덕에 대한 긍정성과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도덕적 동기화 검사의 문항형태를 결정하였는데, 확정된 도덕적 동기화 구성요소의 6개 소항목을 모두 물을 수 있도록 이야기 사례를 개발하였다. <상재의 결정>, <부서진 작품>, <버스 안에서 생긴 일>의 이야기 사례가 확정되었다. 상재의 결정은 공정성과 정직성을, 부서진 작품은 책임을, 버스 안에서 생긴 일은 약자에 대한 보호와 노인 배려에 대한 핵심 가치들에 대한 동기화 정도를 묻고 있다.

넷째, 중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연구대상은 총 262명이며, 중학생은 116명(44.3%), 고등학생은 146명(55.7%)이고, 남학생은 123명(46.9%), 여학생은 139명 (53.1%)이었다. 무성의 문항을 준거로 44명을 제외하고 218명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858이며, 대항목과 소항목 모두에서 .06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검사도구의 내용타당도는 인정되었지만 도덕적 동기화의 3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지지되지 않았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적합도가 낮게 나왔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5요인이 추출되었다. 대항목의 3요인을 기준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했을 때 버스 사례가 상이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문항 분석 결과 낙관성에 대한 항목에서 특별히 낮은 반응을 보였다. 낙관성이 심리적 건강 및 청소년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에 낙관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낙관성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해 심층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검사도구의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고 타당화하였다. 이론에 근거한 사례 간 3요인의 모형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례별 3요인 모형의 요인 부하량이 크고 상관이 높아서 사례별 3요인의 가능성이 엇보였다. 하지만 도덕적 주제를 공통적으로 조정한다면 3요인 모형보다 1요인 모형으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감정, 긍정성이 서로 긴밀한 상관이 있어서 모두 도덕적 정체성으로 수렴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2차년도 연구에서 1요인 모형이나 3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사례별 3요인 모형은 이야기 제시방법을 사용할 때 이야기 사례가 담고 있는 도덕적 주제의 공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덕적 동기화의 대항목을 준거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했을 때, 버스 사례가 다른 두 사례와 달리 독자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버스사례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미시도덕의 전형이기 때문에 거시 도덕의 상재와 작품 사례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미시도덕과 거시도덕에 포함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와 약속 지키기를 담고 있는 벼룩시장의 사례를 추가하여 한 요인으로서 공통성을 조사하였다. 1요인 모형으로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벼룩시장의 사례가 사례 간 누적 분산량이 크므로 버스 사례를 벼룩시장의 사례로 교체하였다.

여섯째, 학교급별, 성별, 집단별 통계분석을 통해 도덕적 동기화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학교급별, 성별, 부모의 학력, 종교유무, 도덕과 흥미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 수가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도덕적 동기화 정도가 높았다.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 항목에서는 부모의 학력, 종교 유무, 도덕과 흥미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여학생집단이 남학생집단보다 도덕적 감정의 평균이 약간 높으며, 모학력이 낮은 학생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적 감정이나 도덕적 중심성의 평균이 높으며, 종교 유무가 자신과 삶에 대해 낙관적으로 조망하도록 하고, 도덕과목에 흥미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도덕적 욕구가 높으며, 친구수가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도덕적 자기 중요성, 도덕적 욕구,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긍정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수정된 검사의 예시를 부록3에 제시하였다.

## 2. 활용 방안 및 정책 방안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는 교육행정부처, 각급 학교, 기관, 청소년 개인 수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행정부처에서는 매년 청소년의 도덕적 동기화의 정도를 지표화하여 보관함으로써 청소년 도덕적 동기화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각급 학교,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도덕적 동기화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 약화 혹은 수정할 수 있다.

셋째, 학생 개인 수준에서는 자신의 도덕적 동기화 정도를 확인하도록 하여 자기주도적 인성교육을 위한 동기를 갖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추후 청소년 관련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2차년도 연구의 세부 계획

1차년도의 연구에서 드러난 제한점들을 바탕으로 2차년도의 연구과제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동기화의 측정 개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도덕적 동기화는

국내외에 선행 검사가 없는 새로운 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2차년도에서는 검사도구의 타당화에 각별히 관심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제 도덕 행동을 한 사례에 대한 심층 면접 및 관련 기록의 분석을 포함하여 타당성 검증에 더 초점을 두도록 한다.

둘째, 위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1차년도 예비검사를 수정한다. 특히 이번 1차년도 예비검사 실시 및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Rest의 도덕이 사회 시스템이나 규칙과 관련된 거시 도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야기 사례의 주제들이 Rest의 도덕관에 충실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검사도구의 구인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다.
- 이야기 사례별 문항 구성의 형태에 더하여, 대항목 구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야기가 없는 문항을 추가로 개발하여 포함시킨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문형 문항 형식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추가하도록 한다. 또한 문항을 진술할 때 학생들의 이해가능성을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허위반응의 유형을 역상관 문항으로 일관되게 제작한다.
-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여건이 허락하면 비행청소년(소년원 제소자 등)들을 검사하여 일반 청소년과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2차년도의 연구를 위한 이후 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의 이론적 모형에 대한 토론 및 이론적 논의를 거쳐, 2차 년도 예비검사를 위해 이야기 사례 없는 문항 및 정답식 문항을 추가 개발한다.

둘째, 개정된 이론적 모형과 1차년도 예비검사의 통계 결과에 따라 1차년도 예비검사 문항을 수정 보완한다. 또한 내용타당도를 위한 검증방법을 구안한다.

셋째, 2차 예비검사를 실시한다. 예비검사의 대상은 중학생 남녀 250명, 남녀고등학생 250명으로 실시한다.

넷째, 2차 예비검사의 결과를 분석한다.

다섯째, 예비검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본 검사를 제작한다.

여섯째, 전국 청소년을 유층 비율 표집하여 표준화를 진행한다.

일곱째, 표준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끝으로 협조사항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연구” 라는 주제 하에 1차년도 연구는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등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에 입각하여 개별검사도구를 개발했다. 그러나 Rest의 4구성요소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덕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할 수 있는 별도의 연구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장된 각 분야의 지수산출 방법 및 지수 간 관계 매김의 알고리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적인 타당도 확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윤리교육학회 간 공동주최 형식으로 국제적으로 저명한 도덕성 측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의 저작권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국윤리교육학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술지에 연구결과의 일부를 기획논문으로 게재하여 본 연구 성과를 학계 및 교육계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김경희·이희정(2001).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 김경희(2002).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죄책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 김정수(2008).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이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처와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청소년학 연구**, 15(1).
- 류설영(1999). 대인 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연구: 일반적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미희(2004). 사범대 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효정·정광희(2000, 2001). 한국 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Ⅰ, Ⅱ). 한국교육개발원.
- 서미옥(2005). 4구성요소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도덕발달 연구의 지향점. **중등교육연구**, 53(2).
- 손경원(2005). 도덕적 동기의 근원으로서의 도덕적 정체성. **윤리교육연구**, 8.
- 손경원(2010). 도덕적 정서를 길러주는 도덕수업. 도덕수업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인성교육 살리기. 고양: 인간사랑.
- 손경원(2011). 도덕적 정체성과 성격심리학. **윤리교육연구**, 24.
- 신정원(2002). 성향적 낙관주의와 기분 상태가 만성 동통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현숙(2005). 청소년의 낙관성 및 비관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대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12(3).
- 신현숙·류정희·이명자(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 이인재(2007). 도덕적 자아형성을 위한 도덕교육적 과제. **초등도덕교육**, 23.
- 이정열(2009). **도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도덕적 정체성의 역할과 도덕교육적 함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재분·현주류덕엽(2002). **초 중학생의 지적 정의적 발달수준 분석연구 IV**. 한국교육개발원.
- 이지혜(2005). **도덕민감성 척도 개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희경(2008). 낙관성/비관성, 문제해결평가 및 정적/부적 감정 간의 관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 정영우(2011). **통합적 인격교육에 대한 도덕적 정체성의 함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창우(2004).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교육과학사.
- 정창우(2003). 도덕적 자아의 형성의 도덕교육적 방법. **초등도덕교육**, 13.
- 추병완(1999). **도덕교육의 이해**. 도서출판 백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도덕**」 **교육과정 해설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세영(2007).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7).
- 한인현·권성우·배중훈(2008). 도덕적 가치의 고수: 협상전술과 협상성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변수로서의 팀의 도덕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발표논문집**.
- 황혜원(2011).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3).
- 홍성훈(2000). **의료윤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quino, K. & Reed, A.(2002). The Self-importance of moral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 Aquino, K. & Freeman, D.(2007), *Moral identity in business situations: A Social-Cognitiv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oral functioning*, In D. K. Lapsley & D. Narvaez (Eds.)(2009), *Personality, Identity, Character*,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rrett, K. C.(1995), *A Functionalism approach to guilt and shame*. In J. P. Tangnaey & K. W. Fischer(ed.). *Self-Conscious Emotions*. New York: Guilford.
- Bebeau, J. M.(1993). Designing an outcome-based ethics curriculum for professional education: strategies and evidenc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2(3).
- Bebeau, M. J. J. Rest, & C. M. Yamoore(1985). Measuring Dental Students' Ethics Sensitivity. *Journal of Dental Education* 49(4).
- Blasi, A.(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
- Blasi, A.(1993). *The Development of Identity*. in G.G. Nam & T. E. Wren(eds). *The Moral self*.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Blasi, A.(1995). *Moral understanding and the moral personality: the process of moral integration*. W.M. Kurtines & J.L. Gewritz(Eds)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Boston, MA, Allyn and Bacon).
- Blasi, A.(1999). Emotion and moral motivation.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29.
- Blasi, A.(2004). *Moral Functioning: Moral Understanding and Personality*. D. K. Lapsley, D. Narvaez(eds). *Moral Development, Self, and Identity*.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lasi, A., 정창우 (역)(2005). **도덕적 인격의 심리학적 접근.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서울: 인간사랑.
- Chang, F. Y.(1993). *The Development of a Test of Teacher's moral Reas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 Crisham, P.(1981). *Moral Judgment of Nurses in Hypothetical and Nursing dilemm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Minnesota, Minneapolis.
- Colby, A. & Damon, W.(1992). *Some Do Care: contemporary lives of moral commitment*. New York, Free Press.

- Colby, A.(1995). *The development of extraordinary moral commitment*. In M. Killen & D. Hart (Eds.), *Morality in Everyday Lif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mon, W.(1984). *Self-understanding and moral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In W. M. Kurtiness & J. L. Gewirtz (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 Frimer, J. A. & Walker, L. J.(2009). Reconciling the self and morality: An Empirical of moral centrality development. *Development Psychology*. 45(6).
- Hardy, S. A.(2006). "Identity, reasoning and emotion: An empirical comparison of three sources of moral motivation". *Motivation and Emotion*, 30(3).
- Hart, D. & Fegley, S.(1995). "Pro-social behavior and caring in adolescence: relations to self-understanding and soci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66.
- Higgins-D'Alessandro, A. & Clark Power, F.(2008[2005]). **인격, 책임감 그리고 도덕적 자아**. D. K. Lapsley & F. C. Power저, 정창우 역.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서울: 인간사랑.
- Keller, M. & Edelstein, W.(1993). *The development of moral self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In G. G. Naom & T. E. Wren(Eds.), *The Moral Self*.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Kohlberg, L.(1958). *The Development of Modes of Thinking and Choices in Years 10 to 16*.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Kohlberg, L., 김민남·진미숙 역(2000[1984]). **도덕발달의 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Kurtines, W. M. & Gerwirtz, J. L., 문용린 역(2004, 2005[1995]).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
- Lapsley, D. K., 문용린 역(2000). **도덕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Lapsley , D. K. & Laskey, B.(2001). Prototypic moral character. *Identity*. 1
- Lapsley, D. K. & Hill, P. L.(2009). *The development of the moral personality*. In Lapsley, D. K. & Narvaez, D.(Eds.), *Personality, Identity and Character*.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aiates.
- Lapsley, D. K.(2007), *Moral self-identity as the aim of education*, In Nucci & D. Narvaez (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 Mahwah,

-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psley, D. K. & Narvaez, D.(2004a). *Moral development, Self and Identit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psley, D. K. & Narvaez, D.(2004b).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the moral personality*. In D. K. Lapsley & D. Narvaez (Eds.). *Moral development, Self and Identit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psley, D. K. & Narvaez, D.(Eds.)(2009). *Personality, Identity and Character*.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ary, M. R.(2007). Motivational and emotional approach of the self, *Th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 Lewis, H. B.(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ickona, T.(1991). *Educating for character: How our schools can teach respec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Bantam.
- Matsuba, M. K. & Walker, L. J.(2004). Extraordinary moral commitment: Young adults working for social organiz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72.
- McKinnon, C.(2008[2005]). *인격의 소유와 인간의 변영*. D. K. Lapsley & F. C. Power저, 정창우 역.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서울: 인간사랑.
- Narvaez, D. & J. Rest(1995). *The Four Components of Acting Morally*.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Moral Development : An Introduction*. Boston & London: Allyn and Bacon; 문용린 역(2007).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
- Nunner-Winkler, G. Development of moral motivation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Moral Education*, 36(4).
- Oliner, S. P. & Oliner, P. M.(1988). *The Altruistic Personality: Rescuers of Jews in Nazi Europe*, New York: The Free Press.
- Rest, J. R.(1983). *Morality*. In J. H. Flavell & E. M. Markma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ognitive development*, vol. 3. NY: John Wiley & Sons.
- Rest, J. R.(1985).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Moral Education*. M. W. Berkowitz & F. Oser(eds.). *Moral Education: Theory and Application*. New

- Jersey: LEA.
- Rest, J. R.(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문용린 외 공역(2008). **도덕발달 이론과 연구**. 서울: 학지사.
- Rest, J. R., Narvaez, D. 편, 문용린 외 역(2006[1994]), **윤리경영시대의 전문직업인의 윤리발달과 교육**. 서울: 학지사.
- Rest, J. R.(1995). **도덕적 행동과 관련된 4구성요소**. In Kurtines, W. M., Gerwirtz, J. L., 문용린 역(2004, 2005[1995]).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
- Rest, J. R. et. al.(1999), *Postconventional Moral Thinking: A neo-Kohlbergian Approach*,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ezler, A. G., Schwartz, R. L., Obenshan, S. S., Lambert, P., McGibson, J. & Bennahum, D. A.(1992). Assessment of ethical decisions and values. *Medical Education, 26*.
- Seehan, T. J., Candee, D., Willms, J. & Donnelly, J. C.(1985). Structural equation models of moral reasoning and physician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Health Professions, 8(4)*.
- Schwartz, S. H.(1977). *Normative Influences on Altruism*.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New York: Academic Press.
- Tangney, J. P.(1992). Situational determinants of shame and guil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 Tangney, J. P.(1998). *How does guilt differ from shame?*. In J ByBee(Ed). *Guilt and Children*. San Diego: Academic Press.
- Tangney, J. P., Stuewig, J. & Mashek, D. J.(2007). Moral emotion and moral behavior, *Annual Review Psychology, 58*.
- Thoma, S. J.(2002). An Overview of the Minnesota approach to research in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3)*.
- Walker, L. K.(2002). The model and the measure: an appraisal of the minnesota approach to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3)*.
- Zahn-Waxler, C., Kochanskis, G., Krunick., J., & Mcknew, D.(1990). Patterns of guilt in children of depresses and well mothers. *Development Psychology, 26*.



# 부 록

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1차년도 안)
  - 감수성·동기화·품성화·판단력 -
2.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개발 논의 과정
3.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수정예시



## 부록 1

##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1차년도 안)

- 감수성·동기화·품성화·판단력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윤리교육학회 연구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응답하신 개별 내용들은 컴퓨터로 처리되어 통합적으로 분석될 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총 12개의 짧은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7~12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마다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 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확한 응답이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솔직한 생각을 성실하게, 빠짐없이**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설문 담당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연구책임자: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박균열 (경상대학교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부분에 '√' 표시해 주십시오.

1. 당신은 몇 학년 입니까?

\_\_\_① 중학교 2학년 \_\_\_② 고등학교 2학년

2. 당신의 성별은?

\_\_\_① 남자 \_\_\_② 여자

3. 아버지의 학력은?

\_\_\_①중졸이하 \_\_\_②고졸 \_\_\_③전문대졸 \_\_\_④대졸 \_\_\_⑤대학원

4. 어머니의 학력은?

\_\_\_①중졸이하 \_\_\_②고졸 \_\_\_③전문대졸 \_\_\_④대졸 \_\_\_⑤대학원

5. 도덕, 윤리 관련 과목을 배운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_\_\_①매우 재미있다 \_\_\_②재미있다 \_\_\_③보통 \_\_\_④재미없다 \_\_\_⑤전혀 재미없다

6. 본인의 종교는?

\_\_\_①기독교 \_\_\_②천주교 \_\_\_③불교 \_\_\_④기타종교( ) \_\_\_⑤없다

7. 친한 친구의 수는?

\_\_\_①거의 없다 \_\_\_②1~5명 \_\_\_③6~10명 \_\_\_④10~20명 \_\_\_⑤20명 이상

**“친구의 심부름”**

철오는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성격이 난폭하기로 소문이 나있다. 그래서 누구나 그의 눈치를 보고, 그의 말이라면 아무도 거역하지 못한다. 거역하면 그가 괴롭히는 바람에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철오가 점심시간에 영배를 찾았다. 영배는 철오와는 정반대로, 온순한 성격에다 몸이 약하고 싸움도 잘 하지 못한다.

철오는 영배에게 배가 고프다면서 말하면서, 학교 앞 빵가게에 가서 빵을 사오면 좋겠다고 넌지시 말한다. 말이 부탁이지 강요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철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배는 잠시 고민에 빠진다. 눈 딱 감고 그냥 빵 한번 사다주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럴 순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영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영배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친구를 위한 일인데, 해주면 서로 편하고 좋다	<input type="checkbox"/>				
2. 한번 빵을 사다주면 철오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3. 친구를 위한 일이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4. 영배는 빵을 사다주면서 속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만일, 영배가 철오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5. 내가 직접 나서서 도와줄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6. 도와줄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굳이 내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	<input type="checkbox"/>				

- 위의 “친구의 심부름”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1) 흥미 있었다    \_\_(2) 흥미 없었다
- 위의 “친구의 심부름”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1) 이해하기 쉬웠다    \_\_(2) 이해하기 어려웠다
- 만일, 당신이 영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1) 심부름 해준다    \_\_(2) 심부름 하지 않는다    \_\_(3) 잘 모르겠다
- 위와 같은 일들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1) 그렇다                      \_\_(2) 그렇지 않다                      \_\_(3) 잘 모르겠다

**“절박한 수행평가”**

오늘은 국어 수행평가 과제를 검사받는 날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노트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내는 과제물이다. 그런데, 민지는 다른 과제 때문에 여태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금은 아침 조회시간이고, 국어 시간은 5교시..... 점심시간 때까지 다른 친구가 과제를 보여준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다행히 의견을 정리해서 내는 간단한 숙제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 과제물에서 단어만 몇 개 고쳐서 내면 별 문제없이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

마침 가장 친한 친구인 가형이는 과제를 다 해왔다. 꽤 잘 한 과제물이다. 게다가 가형이는 민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과제물을 보여주려고 한다. 가형이의 과제에서 몇 문장을 바꿔서 내면 될 것 같다. 이제 남은 시간은 4시간 남짓... 스스로 과제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이번 과제는 점수 배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은 흔히 하는 일 아닌가? 하지만 민지는 왠지 망설이고 있다. 민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민지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친구 과제를 약간 고쳐서 내는 것이 감점당하는 것보단 더 나은 일이다	<input type="checkbox"/>				
2.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input type="checkbox"/>				
3.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input type="checkbox"/>				
4.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것은 내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5. 과제를 한번 그렇게 쉽게 해결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게 문제다	<input type="checkbox"/>				
6. 남의 과제를 보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나 손해가 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1. 위의 “절박한 수행평가”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2. 위의 “절박한 수행평가”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3. 만일, 당신이 민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가형이의 과제를 보고 한다    \_\_ (2) 보지 않고 혼자 한다    \_\_ (3) 잘 모르겠다
4. 이런 일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점심 시간”**

즐거운 점심시간, 수진이네 학교는 식당이 워낙 좁아서 빨리 가지 않으면 점심시간이 다 끝날 때에나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점심시간 종만 치면 모두들 전속력으로 식당으로 달려간다. 오늘, 하필이면 수진이네 반은 4교시 수업이 5분 쯤 늦게 마쳤다. 수진이는 가장 친한 친구인 정은, 지은이와 함께 서둘러 식당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다. 마침 그 때, 그 줄의 중간쯤에 아주 친한 다른 반 친구인 채원이가 눈에 띄었다. 수진이를 발견한 채원이는 저 멀리서 손짓을 하고 있다. 여기로 오라고.... 그것은 수진이에게는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다. 채원이 옆으로 간다면 약 20분쯤은 빨리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밀린 과제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은, 지은이를 힐끗 보니 둘 다 그렇게 하자 는 눈치다. 하지만, 줄을 서 있는 다른 애들 눈치가 보여서 망설이고 있는 수진이..... 수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수진이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가능하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그런 상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2.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3.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input type="checkbox"/>				
4. 정은, 지은이도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건 내 책임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5. 한번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6. 앞에 나가면 뒤처지는 애들에게 손해나 피해가 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 위의 “점심시간”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 위의 “점심시간”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 만일, 당신이 수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앞으로 나간다    \_\_ (2) 그 자리에 계속 서있는다    \_\_ (3) 잘 모르겠다
- 이런 일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상재의 결정"**

상재는 역사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수행평가 과제의 표절\*을 찾는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과제를 베꼈다는 사실을 상재에게 고백하면서 눈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상재는 친한 친구인 동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재는 표절을 찾는 작업 도중 별로 친하지 않은 강호의 과제에도 베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재는 고민 끝에 표절의 원칙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수와 강호의 과제 모두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 표절(剽竊): 시나 글, 노래 등을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있어,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한 것이다.	■	■	■	■	■
2	만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	■	■	■	■
3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	■	■	■	■
4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싶다.	■	■	■	■	■
5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	■	■	■	■
6	내 삶은 정말 좋고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공정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	■	■	■	■	■
7	나는 선생님에게 공정한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	■	■	■

### "부서진 작품"

해니는 반 아이들에게 비난받는 윤서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윤서는 축제 기간 동안 전시해 놓은 공예 작품을 부수고도 오히려 발뺌한다고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 윤서는 장난기 많고 덜렁거리서 종종 남의 물건을 망친 적이 있었기에, 공예 작품을 부순 사람으로 윤서가 지목된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부순 것은 윤서가 아니라 바로 해니 자신이었다. 그 사실을 말한다면, 해니는 반 아이들을 속인 사람으로 찍혀서 남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누명을 쓰고 비난 받고 있는 윤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반 아이들에게 사실을 고백하였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있어, 해니처럼 자신의 일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	■	■	■	■
2	만일 스스로 한 일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	■	■	■	■
3	해니처럼 스스로 책임질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	■	■	■	■
4	나는 해니처럼 스스로 한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다.	■	■	■	■	■
5	나는 해니처럼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	■	■	■	■
6	내 삶은 정말 좋고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	■	■	■	■
7	나는 스스로 한 일을 자신이 꼭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	■	■	■

**“버스 안에서 생긴 일”**

일표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주와 함께 버스를 탔다.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기에 둘은 번갈아 앉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곧 사람이 꼭 들어찼고 마침 동주가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가까운 곳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일표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드리자고 말하자, 동주는 자신도 지쳤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일표는 그 할머니가 몹시 피곤해 보여 계속 마음이 쓰였다. 일표는 자신이 앉을 차례가 되자 할머니께 앉으실 것을 권했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있어, 일표처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	■	■	■	■
2	만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나도 일표처럼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	■	■	■	■
3	일표처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	■	■	■	■
4	나는 일표처럼 자신이 조금 지쳐도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고 싶다.	■	■	■	■	■
5	나는 일표처럼 자신이 지쳐어도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	■	■	■	■
6	내 삶은 마음에 들고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	■	■	■	■	■
7	나는 자신이 지쳐있을 때는 꼭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동주의 행동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	■	■	■	■

### “콘서트를 가다가”

현지는 오늘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오늘 저녁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그룹이 일 년 만에 콘서트를 재개하는데, 이 콘서트의 표를 간신히 구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콘서트장으로 가는 도중 버스를 갈아타려고 골목길을 막 돌아서려는 순간,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에서 ‘깅~’ 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났는데, 곧 그 차량은 그 자리를 떠나 가버렸다. 그리고 할머니는 건널목에 쓰러져 계셨다. 주변을 둘러보니 현지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목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오늘따라 급히 서둘러 오느라 현지는 휴대폰도 가져오지 않았다. 콘서트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현지의 마음은 초조했다. 내가 만일 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차량 주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	■	■
2	어떤 불편이나 손해가 생기더라도 내가 목격한 바를 말해야 된다.	■	■	■	■	■
3	콘서트를 볼 기회는 또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	■	■	■	■	■
4	나는 이런 경우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	■	■	■	■
5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내가 경찰서에 갔을 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	■	■
6	이런 일은 귀찮고 무서운 일이지만, 나는 이것이 할머니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다.	■	■	■	■	■
7	나는 친구들에게 약속시간에 늦은 이유를 잘 설명하여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	■	■	■	■

### “어머니의 심부름”

진호는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왜 그런지 발목이 아프다고 느꼈다. 걸을 수는 있지만 조금은 불편했다. 방과 후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 두 명씩 짝을 이루어서 진행되는 게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 8시까지 어린 동생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수 없으니, 진호에게 동생을 데려오도록 부탁하셨다.

이제 곧 8시가 된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하던 온라인 게임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 거의 다 이기고 있었는데,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게임에서 질 것이고, 기분이 나쁜 친구가 무척 화를 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8시를 넘겨서까지 게임을 하게 되면 어린 동생이 어린이집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될 것 같았다. 내가 만일 진호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될 것 같다.	■	■	■	■	■
2	심부름을 하는 것이 가족관계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
3	발목이 불편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어린이집으로 가겠다.	■	■	■	■	■
4	어머니의 심부름처럼 내게 맡겨진 일은 잘 하는 편이다.	■	■	■	■	■
5	지금 게임을 그만두고 동생을 데려와야 하는 이유를 친구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	■	■	■	■
6	발목이 불편하므로 어린이 집에 가지 않겠다.	■	■	■	■	■
7	지금 당장 게임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에 어린 동생을 데리러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	■	■	■	■

## "PC방에서"

같은 반 단짝인 희수와 민이는 주말에 PC방에서 좋아하는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게임에 푹 빠져서 원래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컴퓨터 사용 요금을 내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희수는 민이에게 그만 가자고 말했다.

희수가 먼저 PC방에서 나왔고, 민이는 가방을 챙기고 뒤따라 나왔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민이가 갑자기 희수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린 후 민이는 지갑을 하나 꺼내 들며, '옆 자리에 앉은 사람이 지갑을 빼놓고 화장실을 가서 집어 왔다' 고 했다. 고급 브랜드 지갑이었고, 지갑 안에는 만 원짜리 지폐가 수십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만일 희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속상할 것 같기 때문에 지갑을 꼭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	■	■	■
2	친구가 싫어하더라도 나는 친구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	■	■	■
3	지갑 속의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동을 참아낼 수 있다.	■	■	■	■	■
4	물건을 잃어버려서 속상했던 내 경험을 말해주며, 언젠가는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겠다.	■	■	■	■	■
5	이제는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다.	■	■	■	■	■
6	훈계하거나 비난하는 말투를 쓰지 않고, 차분하게 친구를 설득할 수 있다.	■	■	■	■	■
7	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선택한 대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	■	■	■

<연습보기>

다음은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를 설명하는 A 학생이 작성한 <연습보기>입니다. 잘 읽은 후, 본 검사를 시작해 주세요.

**"자전거 사기"**

철수의 아버지는 차로 30분가량 걸리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이 막히면 한 시간도 넘게 걸린다. 그래서 철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자전거를 하나 사서 회사도 다니고, 시장을 보거나 운동을 하는 데에도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사려고 하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1) 만약 당신이 철수 아버지의 입장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자전거를 산다 (■)    ② 잘 모르겠다 ( )    ③ 사지 않는다 ( )
- (2) 자전거를 사는가 안 사는가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해당란에 ■표 하세요.)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살 것인가, 시내의 백화점에서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함)			■		
2	오래 두고 볼 때, 새 것과 쓰던 것을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				
3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것을 살 것인가,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값이 싼 것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				
4	엔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됨)					■
5	짐 틀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커야 하는가? (이 질문은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됨)		■			

-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 가장 중요한 질문의 번호 ( 3 )  
 둘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 2 )  
 셋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 5 )  
 넷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 1 )

☞ 지시에 따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오.

### "남편의 고민"

한 부인이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암이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약국에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약국 주인은 그 약을 만드는 데 돈과 시간을 많이 쓰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약값을 아주 비싸게 요구했다. 그래서 남편은 약값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약 값의 반박에 벌지 못했다. 남편은 그 약국에 가서 주인에게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약을 반값에 주세요, 나머지 반값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약국 주인은 "미안하지만 안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약을 몰래 훔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 (1) 만약 당신이 이 남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①흠친다                      ②잘 모르겠다                      ③훔치지 않는다
- (2) 남편의 훔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이유가 무엇이든 법이 정한 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그 약을 먹어도 아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갈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부모님이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고 하셨으므로,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아내를 위해서 약을 훔칠까? 아니면 남편인 자신을 위해서 약을 훔칠까?	⑤	④	③	②	①
6	그 약을 만든 약국 주인의 노력과 고생도 중요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약을 훔치다 잡히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8	아내와 남편은 각자 서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⑤	④	③	②	①
9	남편이 약을 훔친 것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게 되면 화를 많이 내시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이럴 때,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약국 주인은 너무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쁘니까, 도둑을 좀 맞아도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탈옥수”**

어떤 사람이 1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1년만 살다가 감옥에서 도망을 쳤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8년간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그는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월급도 잘 주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어 훌륭한 부자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부인이 이 부자가 감옥에서 도망친 범인이라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아직도 그를 체포하려고 열심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인이 이 부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대신 그 부자의 회사는 망할 것이고, 더 이상 좋은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부인은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부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① 신고해야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신고하면 안 된다

(2) 부인이 부자를 신고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감옥에서 도망친 후 그가 한 8년간의 착한 일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감옥에서 도망쳐도 잡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범인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벌을 다 받지 않고 감옥에서 도망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4	그 범인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벌을 어긴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그 부자를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을 무시한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6	감옥에서 도망치다가 잡히면 더 큰 벌을 받으니까 도망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그 사람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나 인정이 없고 나쁜 것인가?	⑤	④	③	②	①
8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벌을 받고 있는 다른 범인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그 부인은 이 범인과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도망친 범인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⑤	④	③	②	①
12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그 범인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환자의 애원"**

어느 젊은 여자가 암에 걸려 6개월 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 이 암은 그 여자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다. 너무나 아프아서 그 여자는 정신을 잃기까지 한다. 강한 진통제를 주면 덜 아프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강한 것이어서 환자를 오히려 더 빨리 죽게 할 염려가 있었다. 가끔 고통이 멈추었을 때 이 환자는 의사에게 조금 많은 진통제를 주어서 아픔 없이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여자는 너무 아프아서 참기도 힘들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달라고 의사에게 울면서 부탁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애원대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의사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이 환자의 애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 ①들어 준다                      ②잘 모르겠다                      ③들어주면 안 된다

(2) 환자의 애원을 들어줄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2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통제를 주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처럼, 의사가 그렇게 해도 똑같이 죄가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느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의사가 실수한 것처럼 일을 꾸며서 환자의 부탁을 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나라의 법에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6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지 않았을까?	⑤	④	③	②	①
7	의사는 환자를 덜 아프게 해주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8	사람이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는 일이 때로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0	의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11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죽고 싶어 할 때, 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죽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사회는 자살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부록 2

#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개발 논의 과정

### 1. 전체 회의 총괄

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전체회의(도덕적 감수성팀, 도덕적 판단력팀, 도덕적 동기화팀, 도덕적 동기화팀) 소집은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검사도구 개발 절차에 따른 전체적인 협조사항 및 질문지 구성, 통계처리 절차 등 이론과 실무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 1 > 참조).

**표 1** 청소년 도덕성 지수개발을 위한 전체 회의 소집 현황

차수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사항
1차	2011.5.6(금)	서울 교대	총1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st의 4구성 요소 명확화</li> <li>- 도덕에 대한 개념 확인</li> <li>- 검사 방식</li> <li>- 기타사항</li> </ul>
2차	2011.6.24(금)-25(토)	여주 남한강 콘도	총1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도구 문제점 분석</li> <li>- 예비검사 방안</li> <li>- 청소년 도덕성 척도 개발을 위한 신뢰도/타당도 검증 계획서</li> <li>- 예비설문조사 점검 양식 제작</li> </ul>
3차	2011.7.16(토)	서울 교대	총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성의 문항 판단방법</li> <li>- 채점방식</li> <li>- 인구통계변인</li> <li>- DIT관련 사항</li> <li>- 기타 및 행정사항</li> </ul>
4차	2011.8.21(일)	서울 교대	총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덕적 판단력</li> <li>- 도덕적 감수성/동기화/품성화</li> <li>- 기타사항</li> <li>- 행정사항</li> </ul>

## 2. 세부 회의 내용(팀별회의 포함)

### 1) 연구진 Kick-Off 회의

### 2) 도덕적 동기화팀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1. 4. 16(토) 16:00-18:3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 (2) 회의 내용

- ① 국내외의 청소년 대상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및 이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 현황 소개.
- ② 국내 자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도덕심리학 연구실에서 나온 청소년 대상 도덕적 동기화 관련 검사도구 및 경험적 연구 선행 자료 확보 및 검토.
- ③ 카페 통한 자료 및 정보 교환(<http://cafe.daum.net/teensmoral>,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개발)

#### (3) 차기 회의 위한 과제 및 역할 분담

- ① 4월말까지 역할분담 통한 서론부분 구축(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이론틀)
- ② 개별 과제 게시 및 정보교환은 카페 통해 진행

### 3) 제1차 전체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1.5.6. 16:00-18:3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203호

#### (2) 회의 내용

- ① Rest의 4구성 요소의 명료화를 위한 요소별 개념 및 하위항목 발표
- ② 각 팀마다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에 중첩된 것은 없는지 확인 : 품성화와 동기화 두

요소가 중첩된 부분이 있음

- ③ 도덕적 동기화 : 도덕적 동기화의 현대 심리학적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
- ④ 도덕의 개념 확인 : Rest는 '도덕=정의'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음. 도덕에 관한 개념 해석은 서구 사회 관점이 아닌 한국적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수용 가능한 설문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에 동의함
- ⑤ 검사 방식
  -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비교적 쉽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설문을 만들기로 함.
  - 다인수 검사와 소수 샘플 심층 검사를 둘 다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인수 검사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그러나 1차년도 연구에서는 다인수 검사를 통해 한국 청소년의 전체적인 도덕성 발달의 수준을 가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림. 소수 샘플 심층 검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초안 작성시에는 포함시켜 보기로 함.
  - 총 설문 페이지 : 한 요소에 3개의 이야기 사례로 구성하기로 함. 하나의 이야기 사례에는 한 페이지를 넘지 않는 정도의 질문으로 만들기로 함. (4개 요소이기 때문에 총 12페이지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1차와 2차 설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함)
  - 대상 : 예비조사는 1000명 정도로 하자는 의견과 200여 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본을 줄이더라도 더 집중력 있게 검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으로 통일.
  - 척도 : 7점, 9점 척도는 너무 복잡하고 5점 척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용.
  - 시간 : 1차 한 시간 (중학교 45분 기준), 2차 한 시간 (중학교 45분 기준)
  - 내용 : 지루함을 피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문화를 녹여낸 설문을 개발하자는 의견.
- ⑥ 기타 사항
  - 일관성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내면적인 덕성, 즉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계기가 되는 요소의 측정 문제
  - 도덕성 총점을 낼 것인가, 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총점은 내지 않기로 결정함.
  - 영역별 점수를 제시하는 것이 합산 점수를 제시하는 것보다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
  - 4개 영역 중요도 (선호도) 조사도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음.
  -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6문제 정도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 뽑는 방식. 둘째, 검사를 한 번 실시하고, 다시 실시해서 일치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

는 방식. 셋째, 기존 검사와 이 검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방식이 논의되었고, 첫 번째, 두 번째 방식이 채택되었음.

(3) 차기 회의 위한 과제

- ① 5월 2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 위한 역할 분담 및 실행(5월 15일까지 작업한 것을 카페에 게시).
- ② 김정순/김지영-품성화 중 용기에 관한 것, 이인재/안초록-품성화 중 절제에 관한 것, 류숙희/윤영돈-도덕적 동기화에 관한 측정 도구 개발의 필요성과 관련 선행 연구물 분석 그리고 이것의 시사점, 품성화 측정 도구에 관한 지표 개발(1-2개 정도)

4) 제2차 전체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1.6.24(금) 15:00-25(토) 12:00

남한강 일성 콘도

(2) 회의 내용 : 팀별 검사도구 검토,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방안

① 검사도구 문제점 분석

- 품성화 하위항목을 절제-만족지연능력, 용기,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4개로 나눴는데, 다른 팀처럼 3개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절제-만족지연능력은 인내로 바꾸고, 용기와 자기효능감을 묶어서 자아강도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수행기술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 ‘나는 ~을 할 것이다’ 를 빼는 것이 좋겠다. 6개의 질문에 허구 문항을 추가하여 (앞, 뒤, 랜덤 순서로) 답변의 일관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좋겠다.
- 이야기 사례가 많은데 사전 조사를 통해서 3개의 이야기 사례로 압축하도록 한다.
- 이야기 사례가 길고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도덕성 구성요소별 검사지 양식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② 예비검사 방안

- 인원 및 대상 : 총 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한다.

중학교 2학년 남자 60명	중학교 2학년 여자 60명
고등학교 2학년 남자 60명	고등학교 2학년 여자 60명

- 조사는 예상 소요시간(2H)과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하지만 그 간극이 1주일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조사대상학교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사전 공문을 발송한다. 이때 질문지는 “추후 협조” 라고 해서, 사전교육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조사는 한꺼번에 실시하고, 자료처리(입력-분석)은 각 팀별로 분담해서 한다.
- 질문지는 PM사무국에서 종합해서 인쇄한다. 스테이플러로 철을 할 때에는 인구통계변인과 감수성을 한 묶음으로 하고, 판단력은 별도로 한 묶음으로 해야 한다.
- 선물은 두 가지인데, 우선 필기구는 질문지 나눠주기 전에 사전에 배포하여 감사표시를 한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한 사람에게는 끝나고 나서 상품권을 나눠줄 것이라는 공지를 한다. 조사가 실제 끝이 나면 문화상품권(5천원)을 제공한다.
- 질문지는 조사 내용이 다르게 실린 2개씩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으므로, 설문지는 조사 대상별로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배포 전 설문지 유형을 확인하여 배포한다.

### (3) 청소년 도덕성 척도개발을 위한 신뢰성 타당도 검증 계획서(박균열, 경상대)

- 사전검사: 연구진 자체적으로 실시. 전반적으로 어려운 정도, 답안작성 중 질문사항 등 내용/절차 점검
- 신뢰도 검증: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안정성(s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정확성(accuracy)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는 어떠한 측정 대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동일한 결과값을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여러 번 반복 측정해서 얻는 측정결과값들의 분산으로 신뢰성을 판단 할 수 있다.
-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alpha:** 동일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측정도구나 항목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여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측정항목 중에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항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갈등문항에서 연구자가 필수적(수치상 신뢰도 하락이라도 중요할 경우)이라고 판단할 경우 문항기술을 조정해야 한다. 계수를 산출해서 여러 항목들로 구성된 측정방법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6에서 0.7이상이 되면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각 연구팀 기술

- **반분신뢰도(split-half method reliability):** 측정도구를 임의로 반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두개의 척도로 사용함으로써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조사항목의 반을 가지고 조사결과를 획득한 다음, 항목의 다른 반쪽을 동일한 대상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반분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도구가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양분된 각 측정도구의 항목수는 그 자체가 완전한 척도를 이룰 수 있도록 적어도 8개문항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반분하는 방법에는 짝수항목과 홀수 항목으로 반분하거나, 무작위적으로 항목을 반으로 추출하여 나머지를 또 하나의 척도로 만드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 보통 Spearman-Brown Reliability Coefficient를 이용한다. ==> 각 연구팀 기술

-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method):**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대상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번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두 측정값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도출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 신뢰성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측정도구를 두 번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루어진 측정이 두 번째 측정에 영향을 미쳐 신뢰도가 실제보다 높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측정시간 간격을 유의해야 하는데 보통 2주에서 4주정도의 시간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또한 이 신뢰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값이 변화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낮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검사 방법에 의한 신뢰성 측정방법은 실제 신뢰성을 과소 측정하거나 과대 측정할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으나 측정도구 자체를 직접 비교할 수 있고 적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주간격으로 재 측정을 하여 신뢰성을 파악한다. 만약 측정결

과의 상관관계가 0.8이상 수준이면 그 측정도구는 신뢰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검증과정 길어 사실상 어려움.

- 타당도 검증: 타당도(validity)는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타당도는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와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내적타당도는 실험이나 연구에서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하고, 외적타당도는 이렇게 측정하여 얻은 실험이나 연구결과를 실제 상황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타당도를 말한다.

-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

실험이나 연구에서 다른 외생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인이 되는 변수의 작용에 의한 효과만을 정확히 추출할 수 있는 조사설계와 외생변수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나 제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적 타당도이 세부적인 유형으로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기준에 의한 타당도, 개념타당도 등이 있다.

- A.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안면타당도라고도 하며, 이는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확한 속성값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를 말한다. 즉, 측정도구가 대표성이 있는 척도내용을 표집했는가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타당도는 연구자나 측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된다. 이는 설문조사 이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문항의 의미전달의 정확성 또는 소요시간 이해를 정도를 조사하여 내용이 중복되거나 어려운 문항은 제외 후 본 조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전문가(관련전공의 박사, 교수 및 연구원)에게 해당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각 연구팀의 내용에 대해, 관련 타 팀의 내용 검증 등으로 보완

## B. 준거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특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측정의 효과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려는 속성이 그 속성의 기준이 되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기준을 무엇으로 잡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공존 타당도(concurrent validity)**와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가 대표적이다. 전자는 현재의 특정현상을 측정하는데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정확한가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존타당도를 통하여 기준에 의한 타당도를 검증하며, 이는 본 척도의 결과와 기존연구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기전달한 바 있으나, 팀별 의견이 없었음. 팀별 주제에 맞는 기존 준거척도 제출하여, 본 조사시 동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C.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개념타당도(concept validity)라고도 하며, 추상적인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도구가 얼마나 적절하게 구성해서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타당도이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사의 변량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할 때 얻어진다. 이는 이해타당도(nomological validity),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로 세분화된다.

## · 이해타당도(nomological validity)

특정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관심이 있는 특정개념과 관련이 되는 개념(유사한 다른 여러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론적 구성도를 작성하여 관련된 개념들로 구성된 모델에 측정방법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들 개념들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일수록 이해타당도가 높은 측정방법이 된다.

## ·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상이한 두 가지 측정방식을 개발하고 이에 의하여 얻어진 측정치들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닌 개념을 측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다중 항목으로 복수로 변수를 사용해도 된다.

•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서로 상이한 개념을 동일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결과값들 간에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동질성 전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구분

동질성 전제 안 된 경우: 우월집단, 정상집단, 열등집단(범죄자 등)

따라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달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학년(중1, 중2, 고1, 고2, 대학생)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하여 시행하며, Scheffe 사후검증을 이용하여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본다. 또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팀별 대조집단 선정에 유념하여 집단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다.

•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이 실험과 유사한 다른 상황이나 현실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 즉, 일반화가 가능한가에 관한 타당도를 말한다. ==> 각 연구팀 위임

**협조:** 각 연구팀에서는 연구간의 신뢰도/타당도 검증을 위해, 연구팀 내 조사시행 전담자 1명을 지정해서 PM사무국으로 통보 요망

- 검사: 재검사 신뢰도 테스트는 이번엔 하지 않기로 하였다. 내용타당도는 각 팀별로 학부 3, 4학년에게 풀어 보도록 해보고 코멘트를 받도록 하였다.

▲ 설문조사를 위한 자체 점검표 제작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현황	학교	
	날짜	
	참석자 유형	
	참석자 수	
2. 결과	회수부수	
3. 설문지 배송	배송일	
	배송 방법	
4. 조사자 (학교 선생님)	이름	
	연락처	
5. 조사담당자	이름	
	연락처	
6. 기타	학생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문항	

## 5) 3차 전체 회의

- (1) 일시 및 장소 : 2011년 7월 16일(토) 17:00-20:0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2)참석자 : 이인재, 류숙희, 운영돈, 서채원, 박균열, 홍성훈, 변순용, 손경원, 김민재.  
 (3)회의 내용(도덕적 동기화팀 관련 사항 위주로 정리)

## ① 무성의 문항 판단방법

- 역문항의 경우 역코딩보다는 정코딩으로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는 의견 제시
- 정문항과 역문항의 검사 결과, 그 차이가 3점 이상이 될 경우 무성의 문항으로 판단

## ★ 논의 결론

- ㉠ 역코딩을 하고 난 뒤 중앙(3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리가 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는 무성의 문항으로 판단
- ㉡ 2점 차인 경우 중앙(3점)이 관련될 경우에는 직접 그 문항과 설문지를 조사하는 작업 필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 ② 채점 방식

- 전체 채점 방식을 0점-4점으로 하는 방안과 1점-5점으로 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괜찮은가.
- 실상 저 두 가지가 통계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 제기

## ★ 논의 결론 : 0, 1, 2, 3, 4의 방식으로 통일

## ③ 인구통계변인

- 3번과 4번의 부모 학력 문항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 제시
- 5번과 7번은 빼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 제시
- 6번에서 '기독교' ⇒ '개신교' 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제시. 한편 6번 문항을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만 측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 제시

## ★ 논의 결론

- ㉠ 5번과 7번은 뺀다.
- ㉡ 6번 문항은 사용하되, 채점할 때는 군집 채점 방식으로 하여 종교가 있느냐(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를 묶어서) 없느냐로 통계
- ④ 기타 및 행정사항
  - 데이터 클리닝의 기준 선정 필요성 제시
  - 각 팀마다 무성의 응답자를 조사하고, 로 데이터(raw data)와 무성의 응답자를 뺀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 두 반 정도(60명)만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반분 신뢰도)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제시
  - 각 영역별 총점이 동일되면 혹은 환산점수를 사용한다면, 매해 검사할 때 각 영역의 발달 정도를 검사할 때나 다른 부분에서도 비교가 용이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제시
  - 신뢰도(내적 일치도) 검사를 할 때 측정 영역별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조사지 첫 장에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 조사 설문 조사>를 ⇒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로 수정, 또한 <7-12개씩의 문항> ⇒ <여러 문항>으로 수정할 필요성 제시
  - 각 영역별 검사 지시문(예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와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통일
  - 최종 보고서는 각 팀마다 8월 말까지 작성하되, 이를 위한 모임을 8월 중순경 가질 예정임

## 6) 4차 전체 회의

(1) 일시 및 장소 : 8월 21일(일) 15:00-20:0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2) 회의 내용(도덕적 동기화팀 관련 사항 위주로 정리)

① 검사결과 분석 관련

- 답안에 대한 채점 방식을 지난 회의에서는 0-4점으로 결정하였으나, 다시 1-5점으로 환원한다.
- 각 지수 산출 과정에서, 확인적 요인분석(감수성), 탐색적 요인분석(동기화/품성화)을 통해, p값이 .05초과는 우선 제외하고, 나아가 Beta값이 0.3미만인 항목은 삭제하고 난 뒤에 종합지수를 계산한다.
- 요인분석의 결과 상정한 요인이 잘 묶여지지 않을 경우 문항을 조정한다.
- 2년차에는 1년차 때와 달리 고등학교 1-2학년을 함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 ② 기타 사항

- 최종보고서에는 지금까지 진행하였던 토의 관련 장소 / 시간 / 주제 / 팀별 논의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2-3년차 향후 연구 소요 및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관련 추후 연구나 메타 연구는 3년차에 제시한다.
- 최종보고서 맨 앞의 총론에서 4요소의 상관관계를 개괄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 인구통계변인에 따른 분석시, 학교급, 성별, 도덕과목선호도, 종교 유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변수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미도를 표기해서 분석하되, 의미가 없더라도 표시하고 분석에 포함한다. 다만 상호작용 분석시는 성별\*학교급별 교차 검증만 포함한다.
- 1년차의 작업에서는 모든 팀의 노력을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 쏟아야 한다.

### ③ 행정사항

- 10.27(목)-28(금) 한국윤리교육학회 국제세미나 중 28일 오후 세션에서 '청소년도덕성검사도구' 1년차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 요지는 청소년정책연구원에 기제출(9.30)한 보고서를 요약 작성, 실제 발표시에는 ppt형태로 15분 내외 발표, 토론 3명 정도(15분).

## 부록 3

#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수정예시

### "상재의 결정"

상재는 역사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수행평가 과제의 표절\*을 찾는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과제를 베꼈다는 사실을 상재에게 고백하면서 눈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상재는 친한 친구인 동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재는 표절을 찾는 작업 도중 별로 친하지 않은 강호의 과제에도 베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재는 고민 끝에 표절의 원칙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수와 강호의 과제 모두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 표절(剽竊) : 시나 글, 노래 등을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구분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도덕적 정제성	1	상재처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며 규칙을 적용한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상재처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상재처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상재처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나는 긍정적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며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해 할 상황에서 기꺼이 그렇게 행동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무성의 문항	7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싶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 "부서진 작품"

해니는 반 아이들에게 비난받는 윤서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윤서는 축제 기간 동안 전시해 놓은 공예 작품을 부수고도 오히려 발뺌한다고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 윤서는 장난기 많고 덜렁거리서 종종 남의 물건을 망친 적이 있었기에, 공예 작품을 부순 사람으로 윤서가 지목된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부순 것은 윤서가 아니라 바로 해니 자신이었다. 그 사실을 말한다면, 해니는 반 아이들을 속인 사람으로 찍혀서 남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누명을 쓰고 비난도 받고 있는 윤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반 아이들에게 사실을 고백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구분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도덕적 정체성	1	해니처럼 자신의 잘못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소중한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아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게 된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해니처럼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질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어렵더라도 해니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해니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나는 긍정적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며, 나의 잘못에 책임져야 할 순간에 책임지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무성의 문항	7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싶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 "벼룩시장에서 생긴 일"

성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작은 벼룩시장이 열렸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성하는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형 플레이스테이션 2를 이번 기회에 팔려고 들고 나왔다.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샀지만 이제는 오래된 게임기이고 자신도 많이 사용하였기에, 성하는 7만원으로 가격표를 붙였다. 곧 비슷한 또래의 학생이 다가와 가격표를 보더니, 조금 비싸다며 5만원으로 하자고 하였다. 성하는 그 가격도 괜찮다 싶어 팔려고 하였는데, 그 학생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돈을 가지러 집에 들러야 한다고 말하며 15분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바쁘지 않았던 성하는 벼룩시장을 둘러보고 있을 테니 다녀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떠나자마자 다른 학생이 다가와 게임기를 7만원에 바로 사겠다고 하였다. 성하는 그 제안에 많이 망설여졌지만, 먼저 한 약속이 있기에 거절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구분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도덕적 정체성	1	성하처럼 약속을 지키는 일은 나에게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성하와는 달리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게임기를 다른 학생에게 팔았다면, 나는 그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성하처럼 약속을 지킬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성하처럼 이익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다면 지키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성하처럼 이익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나는 긍정적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며 약속을 했다면 이익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지키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무성의 문항	7	나는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 Youth Morality Test(KYMT): Moral Motivation

KYMT is developed to measure youth morality based on the four component model's factor: moral sensitivity, moral judgment, moral motivation, and moral character.

Moral motivation is as in the follow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easure of the moral motivation for Korean adolescents, and to obtain evidence of validation for interpreting the scores on the testing tool. The moral motivation corresponds to the third component among four component model which J. Rest suggested,

An initial tool included three stories comprised of 6-item per story which was composed of two factors based on the theories of moral identity and moral emotion. It was redefined as the construct comprised of three factors and sub six factors which added third factor related with researches of optimism after reviewing the content-related validity in the conference for developing the Korea Youth Morality Test. Then this testing tool finally was composed of three factors with 21-item in the three stories of moral exemplar. The preliminary test was conducted to 262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oral motivation test for adolesc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value of coefficient alpha for the final 21-item was .858 after removing invalid responses. second, the result of a serie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idn't provide the evidence of the validity of three factors model, It showed the values contained in the story was recognized as more influential factors than factors designed to measure in this study, and was found one factor model of moral identity through three stories. Third, we revised the testing tool which was composed of one factor model with topic of the macro morality about moral exemplar story.

In the subsequent study,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t is very necessary to develop test with high validity by analyzing the depth interviews and using the different types of questionnaire on moral motivation.

Key Word: Morality, Youth Morality, Korea Youth Morality Test(KYMT),  
The Four Component Model, Moral motivation

##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운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운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향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소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향인·류숙희·윤영돈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 수시과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해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보고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977-6

978-89-7816-973-8(세트)